



한글 창제 및 반포 기념 학술대회

한글의 오늘과 내일

일 시 : 2002년 5월 9일 (목) 오후 2시 - 5시
장 소 : 여주 남한강 일성콘도 2층 세종홀

주 최 : 여주문화원
후 원 : 여주군, 여주교육청, 여주대학

여

백

제 34회 세종문화큰잔치

한글 창제 및 반포 기념 학술대회

한글의 오늘과 내일

일 시 : 2002년 5월 9일 (목) 오후 2시~5시

장 소 : 여주 남한강 일성콘도 2층 세종홀

주 최 : 여주문화원

후 원 : 여주군, 여주교육청, 여주대학

여

백

개 회 사

한 만 규

여주문화원장

제 34회 세종문화 큰잔치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자랑인 한글 창제 및 반포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의 학술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용국 군수님, 신승균 군의회의장님, 이용식 교육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과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여주대학 학생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 학술대회는 한글의 빼어난 점과 세종대왕의 높으신 덕을 기리고 잇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제 14회 여주도자기 박람회 기간에 열리므로써 여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글의 중요성과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여주는 세종대왕과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대왕께서 3번 씩이나 여주를 방문하셨고 대왕승하 19년후인 1469년 광주 대모산에 있던 대왕이 능침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여흥에서 여주라는 새지명을 얻게 된 인연이 그것입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나랏 말쑤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제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28자를 만든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세종대왕 자신은 한문에 달통했기에 말하고 쓰는데 하등 불편을 느끼지 않았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기위해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건강도 돌보지 않은 채 한글을 창제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종대왕을 그

리고 사모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학술대회는 세종대왕의 고마움을 되새기며 우리 한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한글 창제 및 반포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학술대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5월 9일

격 려 사

경기도여주교육청
교육장 이 용 식

먼저 한글 반포 556돌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제34회 세종문화큰잔치의 일환으로 충효의 고장 우리 여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재인식하고 세종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느라 애써주신 여주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신 주제 발표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구상에는 2천여 종의 언어가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문자만도 250여 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문자 속에서 우리의 한글을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인 글자라고 내세우는 것은 주지하다시피 우리 한글은 그 글자를 만든 목적과 동기, 글자의 수효, 그 체계와 원리 그리고 용법 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문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세계 문자사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일로 한글과 그 주인인 우리의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으며 세계 인류의 독특한 문화 유산으로 인정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글은 참으로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발명 문자입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는 현대 언어학 또는 문자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상키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글자입니다. 과학적인 제자 원리 이외에도 우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뚜렷이 구분되는 문자라는 점, 기본적으로 한 글자에 하나의 음소가 대응된다는 점, 배우기 쉬운 글자라는 점 등, 다른 나라의 글

자에 비해 많은 우수성을 지닌 글자입니다.

특히 세계 어느 글자에 비해 우리 한글이 배우기 쉽다고 하는 점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국제 기구에서 공인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세종대왕 문맹퇴치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주고 있는데, 이 상이 세종이라는 이름을 딴 것은 세종 임금이 만든 한글이 가장 배우기가 쉬워서 문맹자를 없애는 글임을 세계가 인정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글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인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에만 우리가 도취되어 우리 한글에 대한 체계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다가온 정보화 사회에서 더 이상 한글은 우수한 문자로서의 지위를 지켜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학술대회는 매우 뜻깊은 대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미래 지향적인 한글 연구와 한글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를 주관하신 여주문화원과 주제 발표를 해 주실 박사님, 그리고 이 대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5월 9일

-학술대회일정-

시간	소요시간	내용	비고
14:00		개회	사회:이진호 여주대학교수
14:00-14:01	1	국민의례	
14:01-14:05	4	개회사	한만규 여주문화원장
14:05-14:10	5	격려사	이용식 여주교육장
14:10-14:35	25	기조강연 세종대왕 능력 방문자의 지각수준 분석	박석희 경기대 관광개발학과교수
14:35-15:05	25	1. 주제발표 한글제자 원리의 배경	안병희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
15:05-15:20	15	휴식	
15:20-15:50	30	2. 주제발표 훈민정음 제자 이론과 중국 문서와의 관계 -절운지장도를 위주로-	성원경 건국대 중문과 명예교수
15:50-16:20	30	3. 주제발표 훈민정음 창제연대와 한글날 -세종대왕탄신일도 5월 15 일이 아니다.-	진태하 명지대 국문과 교수
16:20-16:30	10	휴식	
16:30-17:00	30	종합토론	이하준 서울가톨릭대학 교수 이승후 재능대학 교수 조성문 여주문화원 사무 국장
17:00		폐회	

여

백

世宗大王陵域 방문자의 知覺水準 분석

—박석희 경기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1998.11 - 2001.3 한국공원휴양학회 회장

2000.3 - 현재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2000.7 경기대학교 입학관리처장

대표저서

1989. <신관광자원론>, 명보문화사

1991. <환경과학개론> (공저), 동화기술

1995.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공저), 일신사

2000. <포스트테마파크> (역서), 일신사

2001. <나의 문화관광탐구>, 백산출판사

여

백

世宗大王陵域 방문자의 知覺水準 분석

朴石熙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I. 머리말

이제까지 知覺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박석희 · 허정, 1993:328), 구달(Goodal, 1990)에 와서는 우리들의 지식을 현실이 아닌 우리들의 지각을 바꾸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 觀光經驗에서 知覺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지각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知覺水準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등에 관해서는 연구되지 않고 있다.

지각과정에 관한 연구로는 골드스타인이 視知覺過程을 6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Goldstein, 1980: 2) 그는 전기적 충격이 뇌에 전달되어 뇌에서 처리된다고 하였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처리되는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 뒤 매요와 제비스(Mayo, and Jarvis, 1981: 33-38)는 선택적 주의, 이해, 선택적 보유의 3단계를 거쳐서 지각된다고 하였고, 피스크의 4단계 지각모형을 이(Yi, 1992: 41-79)는 비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들 모형은 지각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나 측정상의 어려움이 있어 實證的 研究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한편 헤이워드(Hayward, 1987: 59-60, 148-152)는 본다의 5단

계 지각과정인 색·수·상·행·식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헤이워드의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각 단계를 명명해 볼 수 있다. 즉 「있구나 단계」, 「공부정 평가단계」, 「특징추출단계」, 「의미부여단계」, 「이야기선 형성단계」 등이 그것이다(박석희, 1992: 250).

그런데 이와 같이 지각 그 자체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없었다. 그러다가 필자(박석희, 1992)가 이 과정에 의해 觀光客의 지각수준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고, 허정(허정, 1992)은 5단계 지각수준을 측정하고, 4,5단계에 이른 사람을 대상으로 가설검증을 행하였고, 필자 등(박석희·허정, 1993)은 관광지의 주요시설에 대한 지각수준이 5단계에 이르면서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분석한 바 있다.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 있었고, 일정한 공간에 그의 영정을 모시고 그의 업적을 전시해두고 있더라도 방문하는 사람이 그 자원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지각하지 못한다면 그때의 經驗의 質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첫째, 英陵 방문자의 지각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둘째, 방문자의 지각수준이 낮은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며, 셋째, 방문자의 지각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檢討·提示함으로써 英陵공간이 지니고 있는 역사遺跡地로서의 가치를 더 높이는 데 기여함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II. 研究方法

연구대상 공간은 현재 京畿道 驪州郡에 소재하고 있는 英陵으로서, 영릉은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을 진흥시키고, 음악을 정리하며, 외치와 국방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찬란한 업적을 남긴 世宗大王 遺蹟管理所를 두고 관리를 해오고 있는 곳이다.

訪問者의 지각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93년 10월 1일(금요일)-10월 3일(일요일)간의 3일에 걸쳐 英陵境內를 방문하고 나온 사람들을 출구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인쇄된 설문지를 가지고 표준화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원은 그간에 조사경험이 풍부한 학생들이었으며 최종 회수된 유효표본은 407매였고 이를 가지고 SA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비율분석, t검증, 분산분석 등의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와 10%로 하였다.

조사대상 시설로는 세종전내에 있는 編鐘·編磬, 야외 잔디공간에 전시되어 있는 自擊漏, 紅箭門, 그리고 封墳앞에 서있는 文武神을 선택하고 이들 시설에 대하여 ‘있구나 단계’, ‘궁부정 평가 단계’, ‘특징분석 단계’, ‘의미부여단계’, 그리고 ‘이야기線 형성 단계’ 등으로 지각수준을 5단계로 구분·측정하였다(박석희, 1992: 250). 그리고 학습내용의 정오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仰釜 日晷, 水標, 紅箭門, 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내용분석을 위해 도입된 주요변수로는 성·연령·학력·거주지·방문경험·동반형태·사전지식정도·취향 등 방문자의 지각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되는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그

리고 資源解説方法에 대해서는 해설문제에 대한 관심정도, 해설문의 도움정도, 해설문 내용의 적절성, 해설문 내용 및 용어의 이해용이성, 안내원의 해서 필요성 등을 파악 분석하였다.

III. 結果 및 考察

1. 訪問者 知覺水準 現況과 問題點

가. 방문자 체재시간 현황

영릉 방문자의 체재시간을 조사하기 위하여 '93년 10월 2일 오후1시부터 3시 사이에 도착하는 차량의 번호를 적고, 다시 이들 차량이 떠나는 시간을 조사하여 차량중심으로 방문자의 체재시간을 산출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60-79분간 체재하는 차량이 40%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가장 길게 체재하는 경우가 129분이었고, 최소값은 9분이었으며, 평균 69분간 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차량기준의 체재시간 현황 (단위: 대, %)

체재 시간 구분	19분이하	20-39분	40-59분	60-70분	80-99분	100분이상	계
대수	2	5	10	22	8	8	55
비율	3.7	9.1	18.2	0.0	14.5	14.5	100.0
평균: 69분 최대: 129분 최소: 9분							

이러한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도 개방된 야외공간에서, 그리고 단순하게 단장되어 있는 곳에서 역사이래 가장 위대한 聖君을 받드는 世宗大王의 뉘을 기리고 위업을 어느 정도나마 체감

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나. 訪問者의 知覺水準과 問題點

영릉 방문자의 지각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시설로는 編鐘·編磬, 自擊漏, 封墳 앞의 文武神, 그리고 紅箭門 4가지를 선택하였으며, 지각수준은 ‘있구나 단계’, ‘궁부정 평가 단계’, ‘특징추출 단계’, ‘의미부여 단계’, 그리고 ‘이야기선 형성단계’ 등 5단P로 구분·측정하였다.

방문자의 지각수준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듯이, 編鐘·編磬에 대해서는 전체의 77.3%가 이를 보았다고 하였으나, 編鐘·編磬이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이야기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사람 즉 지각수준 5단계에 이른 사람은 전체의 28.5%에 그치고 있다. 한편 編鐘·編磬을 아예 보지도 못했다는 사람도 22.3%나 되고 있어 방문자들의 編鐘·編磬에 대한 지각수준은 아주 낮다고 하겠다.

自擊漏에 대해서는 전체의 83.1%가 이를 보았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전체 방문자의 16.9%는 自擊漏를 보지 못하였거나 自擊漏가 어떤 것인가를 구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自擊漏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이야기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사람은 다른 시설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46.4%에 이르고 있으나, 이 정도의 비율도 결코 높다고는 볼 수 없겠다.

다음 封墳앞의 文武神에 대해서는 전체의 64.5%가 이를 보았다고 하였으며, 방문자의 35.5%는 이것을 보지 못하였거나 이것이 어느 것을 가리키는가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封墳 앞의 文武神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이야기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15.1%에 지나지 않아 아주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 시설별 지각수준 단계별 방문자의 비율 (단위: 명, %)

지각 수준 시설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X2의 값
	표 본 수	비율	표 본 수	비율	표 본 수	비율	표 본 수	비율	표 본 수	비율	표 본 수	비율	
편종· 편경	403	100.0	313	77.7	256	63.5	198	49.1	155	38.5	115	28.5	120.0
자격루	403	100.0	335	83.1	289	71.7	229	56.8	215	53.3	187	46.4	57.3
봉문의 문무신	403	100.0	260	64.5	160	39.7	101	25.0	74	18.4	61	15.1	202.2
홍살문	403	100.0	344	85.4	243	60.3	149	37.0	110	27.3	93	23.1	234.2

주: 1% 유의수준에서 n=4일 때 $X^2=13.28$ 이므로 이상의 모든 경우에 1% 수준에서 유의함

끝으로 능 남쪽 150m에 위치한 紅箭門에 대해서도 전체방문자의 85.4%가 이를 보았다고 하였으나, 紅箭門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이야기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사람은 전체의 23.1%에 그치고 있다.

이상의 4가지 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자의 지각수준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러한 시설이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평균 77.7%였다. 따라서 나머지는 22.3%는 英陵 境內에 있는 世宗大王의 偉業을 기리고 알리기 위하여 갖추어둔 시설을 아예 보지 못하고 가거나 시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구나 이들 시설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이야기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 할 수 있다는 사람은 평균 28.3%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곧 영릉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나마 世宗大王의 위업을 체감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주 낮은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學習內容의 正確性에 관한 問題點

방문자들이 英陵 경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학습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仰釜日晷, 水標, 紅箭門 등 3가지 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한 숙지내용의 정확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여 仰釜日晷의 경우에는 ‘仰釜日晷의 안내문을 읽고 시간은 측정해 볼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32.0%였으며, 68.0%가 시간을 측정해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仰釜日晷의 안내문 자체가 일반이 그것을 읽고 시간을 측정해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仰釜日晷를 그곳에 설치해 둔 것이 단순한 장식물로서의 기능만 하게 할 목적이었는가는 알 수 없으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용해 볼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水標의 경우에는 ‘水標는 무엇을 하는 도구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水標가 강우량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제대로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3.6%로 상당히 높은 가운데, 그것의 용도를 잘

못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36.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紅箭門의 경우에도 紅箭門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紅箭門에서 절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하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47.0%였으며, 더 많은 사람(53.3%)이 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면 각 시설물에 대하여 안내판을 통하여 그것의 용도나 기능 또는 의미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전체방문자 가운데 평균 47.5%가 그들 내용을 제대로 이해 내지 학습하는 데 비하여, 더 많은 사람 즉 전체방문자 가운데 52.5%가 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학습내용의 옳고 그름과 방문자의 지각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표 3>에서 보듯이 仰釜日晷, 水標, 그리고 紅箭門 등의 시설에 대하여 그들의 기능과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에 비하여 지각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水標와 紅箭門의 경우에는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水標의 경우에는 水標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지각수준(4.089)이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의 지각수준(3.754)보다 높으며, 紅箭門의 경우에도 紅箭門에 대한 예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지각수준(4.096)이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의 지각수준(3.85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仰釜日晷의 경우도 같은 관계를 보이고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다고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는 방문자의 지각수준이 낮은 원인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표 3〉 학습내용의 정오별 지각수준 차이유무 (단위: 명, %)

구분 시설		표본		평균지각수준	검증결과
		크기	비율		
仰釜日晷	正	106	32.0	4.207	t=1.596
	誤	225	68.0	3.871	p=0.112
수표	正	213	63.6	4.089	t=2.121
	誤	22	36.4	3.754	p=0.035**
홍살문	正	156	47.0	4.096	t=2.098
	誤	176	53.0	3.852	p=0.037**

주: **는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가리킴.

2. 知覺水準이 낮은 原因에 대한 考察

英陵 방문자의 지각수준이 낮은 것이 방문자의 배경변수, 방문자의 訪問經驗 및 餘暇行態, 事前知識, 그리고 趣向 하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3가지 기본가설 즉, 첫째, 방문자의 지각수준의 차이는 배경변수의 차이에 기인한다. 둘째, 방문자의 지각수준의 차이는 訪問經驗 및 동반형태의 차이에 기인한다. 셋째, 방문자의 지각수준의 차이는 사전지식 정도와 취향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등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해설방법상의 문제점도 파악해 보기로 한다.

가. 背景變數別 知覺水準의 差異有無

방문자의 배경변수로서 성, 연령, 학력, 거주지 변수를 중심으로

로 지각수준의 차이유무를 검증한 바에 의하면 <표 4>에서 보듯이 編鐘과 編磬에 대해서는 학력의 경우에만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 변수에 따라서는 지각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학력의 경우에는 학력의 경우에는 학력이 가장 높은 대졸 이상(3.627)이 知覺水準이 가장 높고, 대학 재학 및 전문재학(3.542)이 그 다음이며 고졸 이하(3.116)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自擊漏의 경우에는 성·연령·학력·거주지 등 어느 변수에 대해서도 지각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력변수만 編鐘과 編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뿐 성·연령·거주지 등 배경변수에 따라서는 지각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지각수준의 차이가 배경변수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앞에서 설정된 연구가설은 기각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編鐘과 編磬의 경우에는 학력에 따라서 지각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연구(허정, 1992; 박석희·허정, 199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지각수준의 차이가 背景變數의 차이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방문자의 배경변수가 시설물에 대한 지각수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 編磬・編鐘과 自擊漏에 대한 배경변수별 지각수준
차이유무

배경변수		시설		편종・편경		자격루	
		평균지각수준	검증결과	평균지각수준	검증결과		
성별	남	3.430	t=1.409	4.032	t=0.948		
	여	3.182	p=0.159	3.886	p=0.343		
연령	10대	2.875	F=0.79 p=0.556	3.828	F=0.21 p=0.959		
	20대	3.386		3.952			
	30대	3.311		4.071			
	40대	3.265		3.882			
	50대	3.200		3.957			
	60대 이상	4.200		3.800			
학력	고졸이하	3.116	F=3.62 p=0.027**	3.866	F=1.12 p=0.327		
	전문대/대재	3.542		4.091			
	대졸이상	3.627		4.014			
거주지	여주군	3.163	F=0.48 p=0.621	4.059	F=0.22 p=0.798		
	서울	3.338		3.963			
	기타	3.367		3.935			

주: **는 5%, *는 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것을 가리킴.

나. 訪問經驗 및 同伴形態別 知覺水準 差異有無

방문경험이나 동반형태를 중심으로 지각수준의 차이유무를 검증한 바에 의하면, <표 5>에서 보듯이 編鐘・編磬과 自擊漏의 경우에 이들 방문회수 및 동반형태 변수에 따라서 지각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編鐘・編磬과 自擊漏에 대한 방문자 관련 요인별
지각수준 차이유무

		편중・편경		자격루	
		평균지각수준	검증결과	평균지각수준	검증결과
방문회 수	처음	3.360	F=0.24 p=0.785	3.960	t=0.948 p=0.343
	두번	3.200		3.868	
	3회 이상	3.338		4.019	
동반형 태	혼자	3.500	F=1.63 p=0.183	3.500	F=0.21 p=0.959
	여행	3.195		3.983	
	가족	3.361		3.951	
	동반 친구・친 지 직장 동료	4.154		4.000	
사전지 식	잘 압	3.408	F=1.25 p=0.286	4.085	F=2.60 p=0.075
	보 통	3.074		3.744	
	모름	3.226		3.656	
시설취 향	그렇다	3.514	F=4.99 p=0.007**	4.043	F=2.32 p=0.099
	보 통	3.357		4.025	
	그렇지 않다.	2.667		3.571	

** 는5%, *는 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것을 가리킴.

따라서 앞에서 설정된 방문자의 知覺水準의 差異는 방문경험 및 동반형태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연구가설은 기각된다. 즉 방문자의 지각수준이 訪問回數 또는 同伴形態에 따라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사전지식 程度 및 趣向에 다른 知覺水準 差異有無

英陵 방문자의 경우 ‘영릉을 방문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事前

知識을 가지고 있었나?’는 질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사람(65.0%)이 가장 많았고, 모르고 있었다는 사람은 11.7%였으며 나머지는 그저 그렇다(23.3%)였다. 그리고 ‘평소에 歷史遺蹟地 방문을 즐겨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즐겨 방문한다는 사람이 36.5%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15.1%나 되고 그저 그렇다가 48.4%나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事前知識程度와 文化遺蹟 訪問趣向 등 두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방문자의 지각수준의 차이유무를 검증한 바에 의하면, <표 5>에서 보듯이 사전지식정도에 따라서는 自擊漏의 경우에는 10% 수준에서 지각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編鐘과 編磬의 경우에는 사전지식 정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세종대왕 당시에 창제된 自擊漏에 대해서는 방문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전지식을 갖춘 사람(4.085)이 그렇지 않은 사람(3.656)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가 높아서 지각수준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세종전에 전시되어 있기는 하여도 세종대왕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編鐘·編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정도가 낮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표 6>에서 보듯이, 평소에 역사유적지 방문을 즐기는 정도에 따라서는 編鐘과 編磬의 경우에는 5% 수준에서, 自擊漏의 경우에는 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編鐘과 編磬의 경우에는 평소에 역사유적지를

즐거찾는 사람(3.514)이 그렇지 않은 사람(2.667)보다 높고, 自擊漏의 경우에도 평소에 역사유적지를 찾는 사람(4.043)이 그렇지 않은 사람(3.571)보다 높은 가운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앞에서 설정된 연구가설 즉, 방문자의 지각수준 차이는 사전지식 정도와 취향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가설에서 방문자의 지각수준 차이가 個人的 趣向의 差異에 기인한다는 가설은 채택되고, 방문자의 지각수준 차이가 事前知識 정도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된다.

라. 解說方法에 관한 意見

資源解說이란 방문자에 대한 효율적 활동이고, 지각발달 도모 활동이며, 새로운 이해, 통찰력, 열광,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資源保全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해설은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데. 이곳 英陵에서는 각종 시설에 대하여 크고 작은 안내판을 이용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식으로 안내해두고 방문자들 스스로가 자기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앞에서 고찰해 보았지만 英陵 訪問者들의 知覺水準이 낮은 원인은 개인의 취향이 중요한 영향변수로 대두되었고 나머지는 결정적인 영향변수라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解說方法 상에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영릉 방문자들의 해설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표 6>에서 보듯이, ‘解說文

을 관심있게 읽어보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사람이 25.8%, ‘그렇다’는 사람이 28.0%로서 전체의 53.8%만이 해설문의 내용을 관심있게 읽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해설이 없는 한 해설문을 관심있게 읽어보지 않고 역사유적이 지닌 의미를 간파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이야기로 들려 줄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해설문을 관심있게 읽어보지 않는 것이 방문자의 知覺水準이 낮은 데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解説文의 내용이 각 施設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사람이 30.0%, ‘그렇다’는 사람이 34.5%로서 전체의 64.5%가 해설문의 내용이 시설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비율 또한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설문의 내용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사람이 16.4%, ‘그렇다’는 사람이 29.9%로서 전체의 46.3%만이 해설문의 내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아 해설문의 내용도 改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解説文이 内容 및 用語가 理解하기 容易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15.7%, ‘그렇다’가 30.3%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의 46.0%만이 해설문의 내용과 용어가 이해하기 용이하다고 응답하여 해설문의 내용과 용어 또한 이해하기가 더욱 용이하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案内員이 해설해 주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

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28.3%, ‘그렇다’가 22.1%로서 전체의 50.4%가 안내원의 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해설방법상에서 문제가 있고, 해설방법의 개선 여지고 있으며, 해설방법을 다양화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해설방법상의 개선을 통하여訪問者의 知覺水準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

〈표 6〉 영릉 방문자의 해설방법에 대한 의견(단위 : %, N=403)

구분 해설방법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해설문 관심	25.8	28.0	38.0	5.2	3.0	100.0
시설물 이해도	30.0	34.5	30.8	2.2	2.5	100.0
내용의 적절성	16.4	29.9	38.6	7.0	8.2	100.0
내용 및 용어 이해	15.7	30.3	40.8	7.0	6.2	100.0
해설 필요성	28.3	22.1	17.5	16.0	16.0	100.0

IV. 訪問者의 知覺水準 強化를 위한 提案

개인의 知覺能力의 차이가 근본적인 것에 있다기 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각능력을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지각수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석희, 1992: 258). 그리고 훈련에 의해서 지각셋(perceptual set)의 변화를 가

처음으로써, 意識의 制御方法을 개발함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다 (Goldstein, 1990: 282; Csilzenthmihaly I, 1988: 31).

따라서 여기서는 체재시간, 해설방법, 입구의 분위기, 사전지식 정도, 공간 분위기 연출 등의 측면에서 방문자의 지각수준 강화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가이 등(Guy et al., 1990: 420)이 지적하였듯이 대부분의 방문자들은 訪問目的地의 내용에 대하여 막연하게 認識한 상태로 방문한다. 그런데 방문목적지의 매력물과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環境學習(environmental learning)이 필요하다. 환경학습의 수준에 따라서 방문자의 상호작용과 觀光消費 정도도 증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英陵의 경우를 보면, 평균 체재시간 69분은 英陵境內에 대한 資源價値를 어느 정도 體驗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설물을 추가하거나 공간구성의 변화를 통하여 방문자의 체재시간을 연장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둘째, 여기서 해설이란 현재상태에서 의미의 풀이(releasing of meaning)를 말하며, 해설을 해주는 목적은 방문자 자신이 자원을 해석하는 것이지만, 그들 스스로 대상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좋고 나쁨을 분석하며,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서 보다 예리한 認識能力・感想能力・理解能力을 갖게끔 도와주는 데 있다(박석희, 1992: 262).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원의 공급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정한 기법을 동원하여 자원에 대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英陵의 경우를 보면, 각종의 전시된 시설물에 안내판을 통하여 일정한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방문자들 스스로가 시설에 대하여 해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서 우선 방문자의 53.8%만이 안내판의 내용을 관심있게 읽어보는 것으로, 그리고 해설의 내용이 적절하다는 사람이 46.3%에 그치고 있으며, 46.0%만이 해설의 내용과 용어가 이해하기 용이하다고 하고 있고 방문자의 50.4%가 안내원의 해설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案内方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안내판이 보다 관심있게 읽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내용의 적절성도 검토되어야 하며, 내용과 용어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안내기법의 도입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셋째, 轉換性の 強化가 지각수준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며(박석희, 1992: 260), 이러한 전환은 물리적이거나 사회적인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물리적으로는 活動과 立地를 변경함으로써 전환이 가능하고, 사회적으로는 규칙과 역할을 변경함으로써 전환이 가능하다(Quarrick, 1989: 40).

이러한 측면에서 英陵訪問者들이 ‘영릉 입구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는 기분을 느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사람이 11.4%, ‘그렇다’는 사람이 51.9%로써 전체의 63.3%가 입구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율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영릉 경내에서도 이러한 轉換의 強化可能性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테면 입구와 경내에 영릉만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象徵物이나 象徵空間을 설치함으로써 분위기의 극적전환을 통한 지각수준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방문자 안내소에서 世宗大王의 업적에 대한 映像物을 방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방문자의 관람자세를 전환시킴으로써 지각수준 강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람들은 文化的 存在로서 자신의 環境과 相互作用하는 가운데, 그들이 선호하는 환경이 서로 다르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 자신의 환경에 관한 文化的 學習(cultural learning)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대한 현재의 경험은 현재 환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유사한 환경에서 事前經驗(prior experience)에 의해 얻은 정보를 비교한 결과이다. 여기서 보면 방문자의 사전 지식정도가 역시 지각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自擊漏의 경우에는 사전지식정도에 따라서 10% 수준에서 방문자의 시설에 대한 지각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즉 방문자의 사전지식정도가 지각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英陵 訪問者들이 英陵 境內에 들어서기 전에 이들에게 영릉 경내 시설 또는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한 사전지식을 어느 정도 갖게 함으로써 방문자들의 지각수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방문자에게 공간의 의미나 자원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연출구성요소인 연기·장치·조명·음향·의상을 주제와 有機的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연출이다. 연출을 통하여 관람자는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탄성을 발하거나, 환상에 젖어들거나, 호기심이 충족되거나, 사진을 찍거나 매료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출도 지각수준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박석희, 1989: 223).

이러한 측면에서 영릉 방문자들에게 ‘境内를 관람하는 동안에 전통음악(국악)이 흘러나오게 한다면 어떻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다’는 사람이 56.8%, ‘바람직하다’는 사람이 22.1%로서 전체의 78.9%가 전통음악이 은은하게 들려오는 분위기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영릉 경내에 雰圍氣 演出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공간의 분위기 개선을 시도하면, 이 또한 방문자의 지각수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V. 맺는 말

英陵 訪問者의 지각수준 관련사항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릉방문자의 체제시간을 조사한 결과, 60-79분간 체제하는 차량이 40%로 가장 많으며, 평균 69분간 체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공간에서 이동하면서 이러한 짧은 시간 동안에 世宗大王의 위업을 어느 정도라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릉방문자의 知覺水準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編鐘·編磬, 自擊漏, 封墳의 文武神, 그리고 紅箭門 등의 시설이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평균 77.7%였다. 따라서 나머지 22.3%는 영릉 경내에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알리기 위하여 갖추어둔 제반 시설물을 아예 보지 못하고 가거나 시설물을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더구나 이들 시설물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이야기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사람은 평균 28.3%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곧 英陵訪問者들이 世宗大王의 業績을 체험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주 낮은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시설물에 대한 학습내용의 정확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 각 시설물에 대하여 안내판을 통하여 시설물의 용도나 기능 또는 의미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전체방문자 가운데 평균 47.5%가 그들 내용을 제대로 이해 내지 學習하는 데 비하여, 더 많은 사람 즉 52.5%가 시설물의 기능이나 의미 등을 모르고 돌아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째, 英陵訪問者들의 知覺水準의 차이가 성·연령·학력·거주지 등 배경변수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바에 의하면, 編鐘·編磬의 경우에만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뿐 나머지의 경우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방문자의 시설물에 대한 지각수준의 차이가 背景變數의 차이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一般化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방문자의 배경변수가 시설물에 대한 지각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영릉방문자들의 지각수준 차이가 訪問經驗 및 同伴形態의 差異에 기인한다는 연구가설은 棄却되었다. 따라서 방문자의 지각수준이 방문회수 또는 동반형태에 따라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일곱째, 英陵訪問者들의 지각수준의 차이가 방문자의 趣向과 事前知識程度의 차이에 起因한다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바에 의하면 방문자의 지각수준의 차이가 방문자의 취향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가설은 채택되고, 방문자의 지각수준의 차이가 방문자의 사전지식정도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가설은 部分的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방문자의 지각수준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사전지식정도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英陵의 경우에 안내판을 통한 自己案内技法을 적용하여 자원을 해설하고 있다. 그런데 방문자의 53.8%만이 안내판의 내용을 관심있게 읽어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解說文의 내용이 적절하다는 사람은 46.3%로 낮았다. 그리고 해설문의 내용과 용어가 이해하기 용이하다는 사람은 46.0%에 그치고 있고, 방문자의 50.4%가 안내원의 해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英陵境內에서 공간에 대한 방문자의 지각수준을 강화하여 世宗大王의 님을 기리고, 偉業을 잘 이해토록 하기 위해서

는 우선 다음과 같은 사항의 개선이 바람직하다.

첫째, 방문자의 滞在時間을 더 늘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물을 더 늘리거나, 공간의 구성에 변화가 시도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안내판을 통한 自己案内技法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資源解説方法을 보완 또는 改善하여야 하겠다. 즉 안내판의 구성을 변화시켜 보다 관심을 끌 수 있게 하고, 내용의 적절성도 높이며, 용어구사도 이해가 쉽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안내기법의 도입도 고려될 수 있다.

셋째, 入口雰圍氣의 轉換性を 強化시켜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象徵施設物이나 象徵空間을 설치하거나 訪問者の 觀覽姿勢轉換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넷째, 방문자의 英陵境內 시설 또는 世宗大王의 業績에 대한 事前知識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英陵境內에서 主題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空間雰圍氣를 演出한다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겠다. 전통음악을 들려주거나 당시의 역사물 의 재현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겠다.

향후에 영릉의 觀光資源化를 위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의 시도가 요망된다.

참고문헌

- 박석희(1989), 『신관광자원론』, 명보문화사
- 박석희(1992), “관광자의 관광지환경지각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논문집』 31.
- 박석희·허정(1993), “관광자의 지각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논문집』 32.
- 전산운(1986), 『세종시대의 과학』,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허정(1992), “관광지 방문자의 환경지각에 관한 연구-법주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Csikszentmihalyi, Mihaly and Isabella Selega
- Csikszentmihalyi(1988), Optimal Experience-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31
- Goodal, Thomas L.(1990), “Perceived Freedom as Leisure
Antithesi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4).
- Goldstein, E. Bruce(1980), Sensation and Perception,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 282.
- Guy, Bonnie S., William W. Curtis and John C. Crotts(1990),
“Environmental Learning of First-Time Traveller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3): 420.
- Heyward, Jeremy W.(1987), Shifting Worlds, Changing Minds, Boston
& London : New Science Library Shambhala: 59-60: 148-152.
- Mayo, Edward J. Jr. and Lance P. Jarvis(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 Travel, CBI Publishing Co. Inc.: 33-38.

Quarrick, Gene(1989), Our Sweetest Hours-Recreation and the Mental State of Absorption, Mc Farland & Company Inc.: 40.

Yi, Young Kyong(1992), "Affect and Cognition Interface in Aesthetic Experience of Landscape", Ph. D. dissertation of Texas A&M University: 41-79.

여

백

한글 制字原理의 背景

안병희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

1990.4 - 1990.12 국어연구소 소장 역임

1991.1 - 1995.12 국어연구원 원장 역임

1998.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표저서

1977 중세국어口訣의 연구, 일지사

1992 국어사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2 국어사자료연구, 문학과 지성사

여

백

한글 制字原理의 背景

安 秉 禧

서울대학교 국문과 명예교수

국어연구원 원장 역임

1.

한글 곧 訓民正音의 制字原理는 『訓民正音(解例本)』의 「制字解」에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일찍부터 산일되었다고 생각되던 그 책이 1940년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한글 字母 28자를 만든 原理가 밝혀졌다. 1945년 光復과 함께 그 原理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소개되었다. 여기에서 그것을 소개하는 일이 새삼스러울 지경이다. 이 글의 主題인 制字原理의 背景을 말하기 위하여 「制字解」의 설명을 요약하기로 한다.

한글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고 하여 制字原理가 象形임을 밝고서 구체적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만든 방법을 설명하였다. 먼저 初聲 17자는 基本字 5자를 만든 다음에 基本字에 字畫을 더하거나(加畫字) 形體를 다르게 하여(異體字) 나머지 12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基本字는 중국의 音韻學인 韻學의 체계에 따라 나뉜 五音を 대표하는 글자인데, 그 音聲을 낼 때의 調音器官 모습을 본떠서 만들고, 加畫字는 기본자의 소리보다 세므로 글자획을 하나씩 더하여 만들며, 異體字는 글자획을 더한 뜻이 없는 글자이다. 이것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五音	基本字	象形の 대상	加畫字	異體字
牙音	ㄱ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 (舌根閉喉之形)	ㅋ	ㅇ
舌音	ㄴ	혀가 윗잇몸에 붙은 모양 (舌附上顎之形)	ㄷ ㅌ	ㄹ (半舌音)
脣音	ㅁ	입의 모양(口形)	ㅂ ㅍ	
齒音	ㅇ	이의 모양(齒形)	ㅈ ㅊ	ㅊ (半齒音)
喉音	ㅇ	목구멍의 모양(喉形)	ㅎ	

中聲 11자는 하늘<天>, 땅<地>, 사람<人>을 본떠서 基本字 ㆍ, 一, 丨의 3자를 만든 다음에, 이들을 한번 합친 글자 곧 初出字를 만들고 거기에 基本字 ㆍ를 다시 한번 더 합친 글자 곧 再出字를 만들었다고 한다. 學者 중에는 中聲도 初聲과 같이 基本字를 낼 때의 調音器官 특히 혀의 모습을 본뜬 것이라고 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制字解」의 설명은 하늘, 땅, 사람과 같은 陰陽이론으로 일관하고, 基本字는 그것을 본떴다고 분명히 하였다. 그리하여 中聲을, 하늘을 본뜬 ㆍ와 ㄱ, ㅏ, ㅑ는 陽, 땅을 본뜬 一와 ㅓ, ㅕ, ㅗ, ㅛ는 陰, 사람을 본뜬 丨는 陰·陽을 겸한 中立으로 나누고 있다. 이 분류는 現代音韻論의 母音調和에 의한 母音의 分類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서 놀라운 일이다. 이것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陰陽	기본자	象形の 대상	初出字	再出字
陽	·	하늘의 둥근 모양 (形之圓 象乎地)	⌒ ㄴ	ㄴ ㄴ
陰	—	땅의 평평한 모양 (形之平 象乎地)	ㄷ ㄷ	ㅍ ㅍ
陰·陽 (中立)	丨	사람의 선 모양 (形之立 象乎人)		

이상이 한글 制字의 原理와 方法인데, 初中聲과 함께 音節을 이루는 終聲은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初聲을 다시 쓰도록 하였다. 初聲과 終聲을 같은 종류의 소리, 곧 現代音韻論의 用語인 子音으로 인식한 결과로서 매우 훌륭한 일이다. 28자만으로 표기되지 않는 소리는 初聲을 세로로 이어서 쓴, 곧 連書한 ㅁ, 初終聲과 中聲을 각기 가로로 나란히 쓴, 곧 竝書한 ㄱ, ㄷ, ㅅ, ㅈ, ㅊ, ㄴ, ㄹ, ㅅ, ㅈ, ㅊ 등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만든 한글은 音節 단위로 모아쓰는 방법 곧 合字法을 규정하고, 音節에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 곧 聲調를 표기하는 傍點까지 마련하였다. 聲調까지 표기하는 文字는 특이한 예가 된다.

이러한 解例本의 설명으로써 한글이 매우 과학적인 文字體系임을 확인한다. 더욱이 制字의 原理가 위 도표로써 基本字를 象形의 방법으로 만들고 나머지 글자를 加畫과 合成으로 만든 것임을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연한 文字體系인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世界의 文字는 이미 사용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도 4백 정도이다. 그러나 한글과 같이 創制의 인물과 연대가 분명한 것도 드물지만, 文字體系와 制字原理가 과학적인 것은 더욱 예가

없다. 한글을 우리의 文化遺産일 뿐 아니라 世界의 文化遺産으로 자랑하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여기에서 解例本이 世界記錄文化遺産으로 등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文字의 優劣이 그 體系와 制字原理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표기하는 言語의 文字化를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 그 文字化로써 얼마나 文化發達에 기여하였느냐 하는 觀點을 종합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論議를 필자는 아직 본 일이 없다. 한글날 무렵에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文字라는 말을 하는 일이 많다. 간혹 한글을 아는 外國學者가 한글의 優秀性を 말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그 말은 언제나 文字體系와 制字原理에 근거한 것이다. 文字의 效用性を 근거한 주장이 아니다. 世界의 3천 여 言語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된 것은, 비록 人工言語이지만 에스페란토이다. 自然言語에서 나타나는 不規則性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규칙적인 文法으로 이루어진 言語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國際語로 되지 못하는 사실을 음미하여야 한다. 이것은 한글의 長點을 애써 외면 하자는 것이 아니다. 金屬活字의 發明과 사용을 자랑하면서 그 限界點에 눈을 감는 잘못을 한글의 評價에서도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2.

모든 文化創造와 마찬가지로 한글의 創제도 우리 文化傳統의 바탕을 떠나서 정당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이는 천 5백년이 넘게 계속된 文字生活의 傳統을 떠나서 그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 글자를 만들면서 당시 우리나라에 알려진 산스크리트, 蒙古, 日本, 女眞의 文字등과 함께 漢字를 연구하고 참고하였을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文字生活의 오랜, 그리고 유일한 수단인 漢字가 만들어진 原理와 方法을 더 크게 참고하였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일찍부터 한글 字母와 漢字사이에 나타나는 약간의 類似性이 지적되기도 하고 口訣字와 한글 字母의 일치가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단편적인 유사나 일치를 말한 것이다. 다른 文字와의 관계를 말할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두 言語의 比較에서 단편적인 單語의 유사나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설득력이 없는 일이다. 그러한 유사나 일치는 우연이기 십상이다. 그것을 지양하고 한글 制字와 다른 文字의 연관성을 말하려면 原理와 方法의 공통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漢字가 유일한 예가 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글의 制字原理를 象形이라고 하고 方法에서 基本字를 먼저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나머지 글자를 순차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 象形은 漢字의 制字原理 그것이다. 漢字는 원래 事物을 본떠 만든 文字이다. 그것은 蒼頡이 새 발자국을 본떠 漢字를 만들었다는 전설에서도 나타나지만, 漢字 研究書의 古典인 『說文解字』에서 기본적인 漢字는 象形임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基本字를 먼저 만들고 加畫이나 合成의 방법으로 나머지 文字를 만든 發想이나 方法도 漢字의 構成原理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文字라 하면 글자를 가리

키는 單一語로 생각되지만, 語源을 따지면 文과 字로 이루어진 複合語이다. 文은 더 분석되지 않는 單體의 글자이고, 字는 文이 합쳐진 合體의 글자이다. 漢字의 構成原理 곧 造字와 運用을 설명하는 六書로써 말하면 文은 指事와 象形(이 경우는 좁은 뜻으로 쓰인다.)으로 만들고 字는 그것을 이용한 形聲과 會意로 만든 글자이다(그밖에 轉注와 假借의 글자가 있으나 文이나 字의 새로운 運用이고 造字는 아니다). 이것은 한글이 基本字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加畫이나 合成으로 나머지 字母를 만든 사실에 대응한다. 다시 말하면 基本字는 文, 加畫字와 初再出字는 字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 체계적인 對應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解例本에는 中國의 韻學에 대한 깊은 이해가 나타나지만, 漢字의 字學에 대한 고려와 그 引用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글 字形을 살펴보면 中聲이 點(·)이나 直線(一, |)으로 되고 初聲이 曲線(ㄱ, ㄴ, ㅁ...)으로 된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解例本에 나오는 象形 對象의 차이이다. 그것은 表面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 背景 이른바 深層에 존재하는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한글 制字原理의 背景을 밝히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는 한글 創制의 시발점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한글의 制字가 解例本の 설명에서 보듯이 처음부터 단번에 체계적으로 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解例本에서 보는 한글 字母와 制字原理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方案이 제기되어 폐기되거나 수정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모를 뿐이다. 시발점에서 감히 추측한다면, 새로운 文字를 音節文字로 하느냐 音素文字로 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결국 한글과 같이 音素文字이면서 音節文字로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創制 당시에 漢字를 지양한 文字生活은 생각조차 할 형편이 아니었다(開花期까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文字生活은 古典漢文이건 吏讀이건 漢字로만 행해졌고, 더욱이 私人 사이의 契約書라도 한글로 만들면 法의 保護를 받지 못한 法令의 存在를 고려하면 안다). 그러므로 새 글자를 이룬바 方塊文字 곧 네모글자인 漢字와 병용할 수 있는 音節文字로 하는 데는 쉽게 생각이 모아졌겠지만, 당시 우리 文字生活의 한 축을 담당한 吏讀나 日本의 固有文字인 가나(假名)와 같은 音節文字로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고려되었을 것이다. 固有語만을 표기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도 유력한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世宗의 한글 創制에는 解例本에서 확인되듯이 漢字음도 표기하려는 뜻이 있었다. 『東國正韻』의 편찬에서 교정된 漢字음을 정확하게 표기하려면, 漢字를 차용하여 변형한 音節文字로는 直音과 마찬가지로 표기의 정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마침내 音素文字이면서 音節文字로 하는 방안이 채택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中國의 韻學과 이웃나라의 音素文字에 대한 연구와 함께, 初聲과 終聲(예컨대 初聲의 ‘叱段(째), 叱分(쑤)’과 終聲의 ‘佛體叱(부텃), 去內尼叱古(가노닛고)’의 표기에 다같이 사용되는 吏讀의 ‘叱’ 등에 대한 이해로 音素文字인 한글을 만들고서 音節 단위로 모아쓰게 하여 音節文字의 性格을

갖게 한 것이 漢字를 고려한 결과로 이해된다.

한글의 네모글자로 모아쓰는 이 合字法에서 初聲과 中聲의 전혀 다른 字形이 생긴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中聲이 극히 단순한 圓點과 直線의 자형으로 되고 初聲은 曲線의 자형으로써 만든 것이 音節 단위로 모아 쓰는 合字法의 고려에서 왔다는 생각이다. 만일 中聲도 初聲과 같이 曲線의 자형으로 한다면, 中聲에 初聲을 붙여 써서 네모글자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가능하더라도 解例本の 合字法과 같이 일관된 체계일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漢字와의 병용이 아니라면 몽고문자나 라틴문자와 같이 初中終聲을 한 줄로 풀어쓰는 방식도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에는 몽고문자나 라틴문자와 같이 初聲과 中聲의 基本形을 굳이 曲線에 대한 圓點과 直線으로 대립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지난날 한글의 풀어쓰기의 자형으로 제안된 一을 u로 하는 따위와 같이 中聲 곧 母音字의 이상한 변형을 보더라도, 한글 字母와 같이 初中聲의 자형을 대립시키는 일은 아예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글 창제의 출발에서 漢字와의 병용을 전제하여 音素文字이면서 音節文字, 곧 한글 字母를 漢字와 같은 네모글자로 모아 쓴다는 전제가 있었고, 그 전제에서 初聲과 中聲의 아주 다른 자형이 선택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中聲의 단순한 자형은, 音素文字인 인도문자와 그 계통인 티베트문자, 파스파문자에서 母音 글자가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사실이 참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본질적으로 單語文字이지만 音節文

字의 성격도 있는 漢字와 함께, 母音 글자가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인도문자 등의 原理를 접합하여 한글 初聲과 中聲의 대조적인 자형은 생겨난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하여 한글 字母의 制字에 漢字의 造字가 참고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모아쓰는 방식도 네모글자인 漢字와 같게 되었다. 그것은 本文의 例義와 解例本の 「合字解」에 나타난 설명으로 더욱 뒷받침된다. 例義에서 이른바 附書라 하여 初聲과 中聲을 모아 쓰는 원칙을 말하고, 「合字解」에서 中聲의 圓者와 橫者 곧 둥글고 가로인 것은 初聲의 아래, 縱者 곧 세로인 것은 初聲의 오른쪽에 쓰고 終聲은 위와 같이 모아 쓴 初中聲 아래에 쓴다고 설명한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현대에도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合字法은 으레 그런 것으로 치부되어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漢字에서 文을 모아 써서 字를 만드는 결합의 방식과 순서가 너무도 일치함을 발견한다. 字를 이루는 文의 결합은 上下나 左右로 모아쓰거나 아래에 받쳐 쓰는 방식이다. 한글의 결합도 똑같이 初聲과 中聲은 上下나 左右로 모아 쓰고 終聲은 그 아래에 받쳐 쓰게 되었다. 終聲에 대한 받침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쓰기가 비슷한 漢字 部首 ‘乚, 乚’의 이름 책받침과 관련되어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어떻든, 한글 字母의 모아쓰는 순서도 漢字의 결합에 나타나는 筆順과 같다. 언제나 初聲을 먼저 쓴 뒤에 中聲을 이어 쓰고, 마지막으로 終聲을 받쳐 쓰는 순서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모아 쓸 때에 한글 字母의 字形이 조금씩 변

형되는 사실도 漢字의 字에 있는 요소가 단독으로 쓰인 文에서 변형되는 것과 같다. 예컨대 초기의 한글文獻으로 확인하는 바와 같이 漢字語 뒤에서 사잇소리를 표기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쓰인 ㅅ과 ㅆ, ㅈ 위와 ㅊ, ㅋ 앞이나 받침의 ㅅ은 결코 같은 字形이 아니다. 조금씩 다른 네 字形을 보이고 있다. 漢字 金의 字形도 ‘鐘, 鑒’에 쓰인 金과 서로 다르다. 조금씩 다른 세 字形으로서 한글 ㅅ의 변형과 통한다. 모두 모아쓰기에서 온 변형이다. 이러한 한글의 合字法과 初中聲의 변형이 漢字에서 왔다거나 그와 맥을 같이한다고 하는 것이 지나친 牽強附會라고 한다면, 적어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合字法의 筆順이 漢字의 그것과 분명히 같지만 표기의 결과가 音聲連續의 순서와 일치함은 아주 다른 점이다. 崔萬理 등이 「諺文反對上疏文」 첫머리에서 “用音合字 盡反於古”라고 한 것이 아주 잘못된 주장은 아니다. 적어도 절반은 올바른 지적이라 하겠다. 거칠게 말하여 初聲, 中聲 그리고 終聲으로 모아쓰는 순서는 그대로 發音의 순서 그것으로서, 漢字에서는 못 보는 일이다. 初中終聲의 모아쓰기는 竝書의 필순과 발음의 대응에도 일관되게 적용된다. 같은 글자의 竝書인 各自竝書는 단일한 音素이므로 필순과 발음과의 일치를 말하기 어렵지만, 다른 글자를 모아 쓰는 合用竝書의 경우에는 그 일치가 확연히 드러난다. 「合字解」에서 初聲, 中聲, 終聲의 둘이나 세 글자를 합쳐 쓰는 竝書의 예를 들어 말하고서 그 쓰는 방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고 한 것은 初聲을 세로인 中聲에 붙여 쓰는 방식 그것이다. 거기에 예시

된 ‘딱(隻), 화(炬), 흙(土)’의 竝書와 그 발음을 비교하면 初中終聲을 모아 쓸 경우와 같이 筆順이 발음의 순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表音文字의 표기가 발음의 線條性에 합치하는 원리를 한글의 合字法은 네모글자로 모아쓰면서도 절묘하게 字母의 筆順으로 지키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한글 制字原理와 方法, 글자를 모아써서 音節을 표기하는 일이 漢字를 참고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일이다. 制字原理의 背景에 漢字가 있었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獨創的이며 科學的인 한글의 性格이 훼손되지는 않는다. 參考는 하였으나 단순한 모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崔萬理등의 「諺文反對上疏文」에서도 지적되었지만 한글은 漢字와 분명히 다른 글자이다. 初聲의 基本字는 調音器官을 본뜨고 中聲의 그것은 母音調和를 인식하여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든 것은 전혀 새로운 發想이다. 여기에 한글이 우리 겨레뿐 아니라 世界의 뛰어난 文化遺産이라고 믿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한 制字와 合字法으로써 한글은 單語文字인 漢字와 본질적으로 다른 音素文字이면서 네모글자로서 漢字와 공존하여 사용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한글의 創制가 독창적인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지만, 漢字와 氷炭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면서 공존하도록 한 점도 인정하여야 한다. 吏讀과 같이 漢字를 빌어서는 固有語를 완벽하게 표기하지 못할 뿐 아니라 直音과 反切로는 漢字음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한글의 創制로 모두 해결한 것이다. 이에 한글의 創制가 우리 文字生活의 오랜 전통

을 단절하려 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보완하게 하였다고 믿는다.

3.

지금까지 한글의 制字原理의 背景으로 漢字의 構成原理를 들면서 설명하였다. 한글 字母의 制字뿐 아니라 連書와 竝書, 나아가서 合字까지도 漢字의 構成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려 하였다. 이는 우리 文字生活의 傳統에서 온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겠다. 文字生活의 傳統은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계승된다. 漢字를 차용하여 성립된 우리의 고유한 文字體系인 吏讀와 한글맞춤법에 대하여도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그 傳統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이 글에서 제기된 주장의 뒷받침을 삼고자 한다.

吏讀는 기본적으로 原義대로 쓰이는 漢字(音讀될 수도 있고 訓讀될 수도 있다)와 原義와 상관없이 假借로 쓰이는 漢字(보통 音讀되지만 訓讀되기도 한다)로 짜여지는 構造로 되어 있다. 전자는 單語의 語彙部, 후자는 그 形態部(밑줄 친 부분)를 표기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吏讀의 表記原則과 構造는 漢文이 實字와 助字로 이루어지는 構造에 일치한다. 實字는 語彙部, 助字는 形態部(밑줄 친 부분)를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鄉歌「處容歌」의 前半부와 『樂學軌範』의 해당 부분을 대조한 다음 引用의 전자와, 『論語』 제1장인 다음 引用의 후자에서 확인된다. 양자의 引用에서 語彙部 곧 밑줄이 없는 부분만으로도 文章의

뜻은 똑같이 드러난다. 구조상의 일치인 것이다.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東京 불곤 득래 새도록 노니다가 드러 내 자리를 보니 가르리
네히로새라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溫 不亦
君子乎

그러므로 吏讀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語彙部와 形態部에 대한
認識은 漢字에 의한 우리 文字生活의 傳統에서 생겨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傳統은 오늘날 한글로 행하는 文字生活
에서도 부분적으로 이어져 온다. 한글의 文字生活은 한글맞춤법
에 따른다. 한글맞춤법은 開化期 國語學의 先覺者들이 주장한 原
則이 바탕에 있다. 그 原則은 대체로 國語를 발음에 좇아 音節
단위로 표기하는 表音主義의 맞춤법을 지양하고 語彙部를 일정
하게 표기하는 形態主義를 표방하는 것이다. 발음에 어긋나더라도
語彙部는 고정된 표기를 하자는 맞춤법이다. 위 「處容歌」의
한글맞춤법에 따른 다음 표기를 위에 인용된 『樂學軌範』의 그것
과 대조하면 누구나 알게 된다.

東京 밝은 달에 새도록 노니다가 들어 내 자리를 보니 가랑
이가 넷이러라

물론 이러한 形態主義가 現代의 音素文字에 의한 表記法理論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語彙部와 形態部를 用法이 다른 漢
字로 표기하는 吏讀, 國漢文混用에서 語彙部를 표기하는 漢字가
일정하게 표기되는 관례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추측된다.

그 관례로 現代의 表記法理論도 쉽게 수궁되었을지 모른다. 이러한 文字生活의 뿌리깊은 傳統에 비추어 보더라도 15세기 한글의 創制에서는 漢字의 構成原理가 그 制字原理의 背景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訓民正音》 制字理論과 中國韻書와의 關係

- 《切韻指掌圖》를 爲主로 -

成元慶 建國大 中文科 名譽教授

1991. - 1993.2 건국대학교 어학연구소 원장

1999.3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2000.7 - 2001.7 중국 문화대학 초빙 교수

대표저서

1994. 十五世紀韓國字音與中國聲韻之關係/북경문학출판사

1991. 中國歷代後宮秘話(上·中·下)/명문당

1993. 韓中音韻學論叢(Ⅰ·Ⅱ)/博而精

2001. 春虛詩苑/중국문화사

여

백

《訓民正音》制字理論과 中國韻書와의 關係

- 《切韻指掌圖》를 爲主로 -

成元慶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중국문화대학 초빙교수

I. 《訓民正音》制字解例와 《切韻指掌圖》의 理論關係

1. 導 言

《東國正韻》申叔舟序에 보면,
... 包犧畫卦, 蒼頡制字, 亦皆因其自然之理. 以通萬物之情, 及至沈·陸諸子彙分類, 集諧聲協韻, 而聲韻之說始興, 作者相繼各出, 機杼論議既象, 舛誤亦多, 於是溫公著之於圖--探頤鉤深, 以一諸說... ..,

이로 보아서 《東國正韻》편찬 때에 소위 司馬光(溫公)이 지었다는 《切韻指掌圖》를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東國正韻》편찬(A.D.1447년)때 참여했던 集賢殿 學士들이 3년 9개월 전인 1443년에 訓民正音を 창제할 때 協讚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보아 《訓民正音·制字解》이론에도 《切韻指掌圖》이론을 참고하였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訓民正音 창제와 《東國正韻》편찬 때 참고했던 중국 韻書 가운데, 《古今韻會舉要》와 《洪武正韻》등도 모두 《切韻指掌圖》설을 기간으로 이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古今韻會舉例》에는

... 音學久矣, 韻書諸舛相襲, 今以司馬溫公《切韻》參考, 諸家聲音之書定著角·徵·宮·羽之序... ..,

라고 하였고, 또한 《洪武正韻》宋濂序에도

司馬光有云備萬物之體用者莫過於字, 包象之形聲者莫過於韻, 所謂三才之道, 性命道德之奧, 禮樂刑政之原, 皆有繫於此, 誠不可不慎也.

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切韻指掌圖》는 중국의 韻書 編纂에서도 중요하게 참고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의 조류로 보아 訓民正音 창제 때 그 영향은 不可不得已한 것이었다.

2. 內容의 比較

양자의 비교를 위하여 《切韻指掌圖》의 내용을 먼저 考究함이 당연한데 이미 필자가 발표한 바가 있어¹⁾ 내용연구는 생략하기로 하고 《訓民正音》과의 유관적인 부분만 비교 一覽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비교로 보아 《訓民正音·制字解》이론 중 일부가 《切韻指掌圖》이론과 相似함을 알 수 있으며 訓民正音 창제 당시 《切韻指掌圖》이론을 참고하였음이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訓民正音》制字解例 중 熟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七言律句로 歌誦한 것도 《切韻指掌圖》중 檢例篇에 歌誦한 것을 轉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五音과 五聲에 있어서 配合差異

《切韻指掌圖》는 宋代의 司馬光이 쓴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 斯界의 학자들이 고증한 결과가 밝혀져²⁾ 司馬光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성운학자들이 《切韻指掌圖》내용을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切韻指掌圖》5張前後面の 五音(宮·商·

1) 中華民國《反攻》323期, 1969. 2. 1 日刊(拙稿)

2) 董同龢, 《切韻指掌圖中幾個問題》,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17本 p. 195.

角·徵·羽)과 五聲(喉·牙·舌·齒·脣)의 배합상 차이가 있음에도 여태까지 발견되지 못하였으며, 드디어 필자의 詳考와 대조에서 발견하여 그 원류를 考究함으로써 중국학계에 큰 문제를 주게 되었음을 附言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切韻指掌圖》중 “宮·喉”와 “宮·脣” 또는 “羽·喉”와 “羽·脣”으로 混淆되어 불분명한데 《切韻指掌圖·辨五音例》(5張전면) 중

※ [] 안은 筆者의 註임

欲知宮舌居中(喉音) [즉 宮과 喉音의 相配]

欲知商開口張(齒頭正齒) [즉 商과 齒音의 相配]

欲知角舌縮却(牙音) [즉 角과 牙音의 相配]

欲知徵舌柱齒(舌頭舌上) [즉 徵와 舌音의 相配]

欲知羽撮口聚(脣重脣輕) [즉 羽와 脣音의 相配]

로 되어 있는 것이 《辨字母次第例》(5張후면)에서는 풀이격으로

牙音春之象也, 其音角, 其行木. [즉 牙·角相配]

舌音夏之象也, 其音徵, 其行火. [즉 舌·徵相配]

脣音季夏之象也, 其音宮, 其行土. [즉 脣·宮相配]

齒音秋之象也, 其音商, 其行金. [즉 齒·商相配]

喉音冬之象也, 其音羽, 其行水. [즉 喉·羽相配]

로 이론상 《辨五音例》와 《辨字母次第例》가 부합되어야 하는데, 단 전자에서는 “宮·喉”, “羽·脣”의 相配로 되어 있고, 후자는 달리 “宮·脣”, “羽·喉”로 즉 “宮”과 “羽”가 전후 도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후대 韻學家들이 크게 곤혹을 받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訓民正音》制字解例에서도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바 있으니, 《切韻指掌圖》(5張후면)의 《辨字母次第例》

訓民正音	切韻指掌圖
① 夫人之有聲，本於五行，故合諸四時而不悖，叶之五音而不戾。喉達而潤，水也，聲虛而通，如水之虛明而流通也，於時爲冬，於音爲羽。牙錯而長，木也，聲叶喉而實，如木之生於水而有形也，於時爲春，於音爲角。舌銳而勳，火也，聲轉而颺，如火之轉展而揚揚也，於時爲夏，於音爲徵。齒剛而斷，金也，聲屑而瘳帶，如金之屑瑣而鍛成也，於時爲秋，於音爲商。脣方而合，土也，聲含而廣，如土之含畜萬物而廣大也，於時爲季夏，於音爲宮。(制字解例) 配諸四時與沖氣。五行五音無不協。維喉爲水冬與羽。牙迺春木其音角。徵音夏火是舌聲。齒則商秋又是金。脣於位數本無定。土而季夏爲宮音。(制字解訣)	① 一氣之出，清濁有次，輕重有倫，合之以五音，運若四時。牙音春之象也。其音角，其行木。次曰舌音，夏之象也，其音徵，其行火。次曰脣音，季夏之象也，其音宮，其行土。次曰齒音，秋之象也，其音商，其行金。次曰喉音，冬之象也，其音羽，其行水。可謂五音之出，猶四時之運者此也。(辨字母次第例)
② 正音作而天地萬物之理咸備，其神矣哉。是殆天啓聖心而假手焉者乎。(制字解例) 天授何曾智巧爲。(制字解訣)	② 是始天造神授以便學者。豫不敢秘也。(〈切韻指掌圖〉序文)
③ 聲音又自有清濁 全清聲是君斗聲 卽戌挹亦全清聲 若迺快吞漂侵虛 五音各一爲次清 全濁之聲叫覃步 又有慈邪亦有洪 全清並書爲全濁。(制字解歌訣)	③ 橫偏第一是全清 第二次清總易明 全清第三聲自穩 不清不濁四中成 齒中第四全清取(心·審) 第五從來類濁聲(斜·禪) 唯有來日兩箇母 半商半徵濁清平。(辨字母清濁歌)
④ 君快叫業其聲牙 舌聲斗吞及覃那 弊標步彌則是脣 齒有卽侵慈戌邪 挹虛供欲迺喉聲 閭爲半舌橫半齒 (初聲解歌訣)	④ 見溪羣疑是牙音 端透定泥舌頭音 幫滂並明脣音重 精清從心斜齒頭音 影曉匣喻是喉音 來日半舌半齒音 (三十六字母圖中抄有關部分)
⑤ 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名曰訓民正音。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簡而要，精而通。(鄭麟趾序文)	⑤ 以三十六字母例其推四聲相生之，縱橫上下旁通曲暢律度精密，最爲捷徑。名之曰〈切韻指掌圖〉。(司馬光序文)

의 說을 받아들여 보충 발전된 이론을 세웠다. 즉

喉遂而潤，水也，聲虛而通，如水之虛而明流通也，於時爲冬，於音爲羽.... 唇力而合，土也，聲含而廣，如土之含蓄，萬物而廣大也，於時爲季夏，於音爲宮.

라고 했으며, 또한 《制字解訣》에서는

維喉爲水冬與羽，唇於位數本無定，於音爲宮.

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 운서에서도 《洪武正韻》은 그 五聲·五音의 배합이 《訓民正音》과 다르게 《切韻指掌圖》의 《辨五音例》와 같고, 《古今韻會舉要》는 《辨字母次第例》와 같아 《訓民正音·制字解》이론과 같음을 있다.

正音學者 崔鉉培 박사도 그의 저서 《한글갈》 266쪽에서

오음(五音)을, 오행(五行), 철(時節), 음계(音階), 쪽(方位)에 갈라 붙이어(配屬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소리의치를 설명하였으니,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해되기 어려운 이론이다. (여기에 宮, 土에 입술소리를 갈라 붙이고 羽에 목소리를 갈라 붙임은 《洪武正韻》이 그것과 서로 반대되는 것이요, 《韻會》의 그것과 일치한 것이니 보기에 서투르다. 그러나 나는 아직 어느 것이 옳은지 똑똑히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여 각기 그 이론이 다름에 모른다고 하였다.

清代 聲韻學者 陳澧도 그의 저서인 《切韻考》에서

《夢溪筆談》謂切韻家以唇·齒·牙·舌·喉爲宮，商·角·徵·羽，則“唇”是“宮”，“喉”是“羽”. 《七音略》以“幫·滂·並·明·非·敷·奉·微”爲“羽”. “影·喻·曉·匣”爲“宮”. 則與《筆談》之說又異，皆不足據也. 古人無平·上·去·入之名，謂之宮·商·角·徵·羽已屬借用，至以三十六字母分配之尤屬無謂，置之不可矣.

라고 하여 《夢溪筆談》과 《七音略》에 있어 五聲 部位와 五音의 차이가 있으나 이것은 平·上·去·入 대신으로 “宮·商·角·徵·羽”를 借用한 것이기에 논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張世祿도 그의 저서 《廣韻研究》에서

蓋當時爲便於稱呼計，遂借宮·商·角·徵·羽以名五音，雖略有出入無關宏旨可勿論也

라고 하여 忽視勿論을 말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訓民正音·制字解》이론상 극히 중요한 것으로 소홀히 볼 수 없는 문제이기에 그 源의 最初를 가려 正誤를 가리고자 한다.

㉔ “宮·唇”과 “羽·喉”의 源流考

《四聲等子》(1권, 작자불명, 司馬光의 《切韻指掌圖》와 이책이 近古에 속함)에서 “角·牙”, “徵·舌”, “宮·唇”, “商·齒”, “羽·喉”로 相配시켰으며, 또한 宋代 沈括·鄭樵 등 諸人이 “喉·舌·齒·唇” 등 七聲에 배합시켰다. 沈括은 말하기를

切韻家則定唇·齒·牙·舌·喉爲宮·商·角·徵·羽. 其間又有半徵·半商者, 如來·日二字是也.

라고 하여 唇聲에 “宮”, 齒聲에 “商”, 牙聲에 “角”, 舌聲에 “徵”, 喉聲에 “羽”로, 그리고 半舌·半齒는 “半徵·半商”에 相配시켰다. 戴震은 또한

沈括《筆談》曰：三十六分爲五音如“幫”字，橫調之爲五音，“幫·當·剛·減·央”是也. 幫“宮”之清，當“商”之清，剛“角”之清，減“徵”之清，央“羽”之清，縱調之爲四等，“幫·滂·茫”是也. 幫“宮”之清，滂“宮”之次清，滂“宮”之濁，茫“宮”之不清不濁，就本音本等調之爲四聲，“幫·滂·傍·博”是也. 幫“宮”清之平，滂“宮”清之上，傍“宮”清之去，博“宮”清之入. 又曰：樂家所用隨律命之本無定音，常以濁者爲“宮”稍清爲“商”最清爲“角”，清濁不常爲“徵”·“羽”，切韻家則定唇·齒·牙·舌·喉爲宮

·商·角·徵·羽. 其間又有半徵半商者, 如“來·日”二字是也.³⁾
라고 하였는데, 이는 전자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宮·脣”, “羽·喉”가 相配를 한 것은 《四聲等子》·《夢溪筆談》·《古今韻會舉要》등이며, 이는 《切韻指掌圖·辨字母次第例》의 說과 같다.

더욱이 우리의 《訓民正音》制字解例에서도 여기에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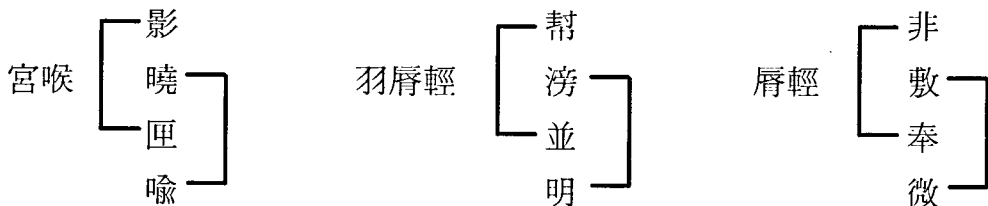
⑥ “宮·喉”과 “羽·脣”의 原流考

守溫(唐代和尚, 중국 최초의 三十字母를 창제한 사람)의 《辨宮·商·徵·羽·角·例》에서는

欲知“宮”舌居中(喉音), 欲知“商”開口張(齒頭正齒), 欲知“角”舌縮却

(牙音), 欲知“徵”舌柱齒(舌頭舌上), 欲知“羽”撮口聚(脣重脣輕).

라고 하였다. “宮舌居中者” 즉 “宮”을 喉音에, “羽撮口聚”, 즉 “羽”를 脣音에 相配시킨 것은 《切韻指掌圖·辨五音例》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다. 이것은 《切韻指掌圖》중 五音·五聲과 三十六字母의 關係를 圖解한 것에서도 같음을 알 수 있다. (관계 있는 부분만 抄錄).



이로 보아 “宮·喉”, “羽·脣” 相配가 정확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는 과학적인 근거에서 논할 수 없어 가장 최초의 설이 무엇인가를 究明하여야겠는데, 守溫은 唐代 사람으로서 최근 발

3) 戴震, 《聲韻考》, p95

견된 敦煌石室의 《韻學殘卷》에서의 實證을 들더라도 믿을 수 있는 一證이 되는 것이다.

또 梁 顧野王之 《玉篇·廣韻指南三十六字母五音五行清濁傍通撮要圖》에는

	角	徵	羽	商	宮	半徵	半商
	木	火	水	金	土	半火	半金
	牙音	舌頭音舌上音	脣重音脣輕音	齒頭音正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全 清	見	端 知	幫 非	精 照	影		
次 清	溪	透 徹	滂 敷	清 穿	曉		
全 濁	群	定 澄	並 奉	從 牀	匣		
不清不濁	疑	泥 孃	明 微		喻	來	日
全 清				心 審			
全 濁				邪 禪			

로 되어 “角·木·牙”, “徵·火·舌”, “羽·水·脣”, “商·金·齒”, “宮·土·喉”로 “羽·脣”, “宮·喉”의 배열을 이루었다(단, 《玉編》의 부록인 《廣韻指南》은 顧野王所撰時의 것인지 그 후대의 첨가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같은 책의 五音의 圖에 《切韻指掌圖·辯五音例》와 똑같은 이론이 있으니 이는 守溫의 敦煌石室遺文과 다름없이 “宮·喉”, “羽·脣”으로 되었음을 보아 믿을 수 있는 二證이 된다.

그리고 《皇極經世·諸吉黃奧洲》註에는

聲音之道，實源於此. 記曰五行之動迭竭也. 四時五行十二月還相爲本也. 五聲六律十二管還相爲宮也. 水竭則木 爲火之本，故舌聲爲徵，必得脣音，曰唱水和於是爲春，於月爲寅卯辰. 木竭則火，土爲金之本，故齒聲爲“商”，必得牙音，月唱火和於時爲夏，於月爲己午未. 火竭則金爲水之本. 故脣聲爲羽必得喉音，星唱土和，於時爲秋，於月爲甲酉戌. 金竭則水爲木之本，故牙聲爲“角”，必得齒音，辰唱石和，

於時爲冬，於月爲亥子丑。惟是甲己於運爲土，而徵火屬之，戊癸於運爲火，而宮土屬地... ..此天地自然之序也。⁴⁾

라고 하였다. 이상의 것을 간략히 配合하여 보면 “火·舌·徵”, “金·齒·商”, “水·脣·羽”, “木·牙·角”, “土·宮·喉” 등 “脣·羽”, “喉·宮”이 됨을 알 수 있어 믿을 수 있는 三證이 된다. 또한 宋本《廣韻》에서

凡呼吸文字卽有五音·脣聲·舌聲·喉聲·齒聲等，一脣聲 “并·餅”，二舌聲“靈·歷”，三齒聲 “陟·珍”，四牙聲 “迦·佉”，五喉聲 “綱·各”.

라고 한 것으로 보아 脣音인 “并(府盈切)”은 “非”母로, “餅(必郢切)”은 “幫”母로 前二證의 《廣韻指南三十六字母五音五行清濁傍通撮要圖》중 “羽·脣”行의 배열인 “幫·非”母와 일치되는 것으로 역시 믿을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 이상의 논증으로 보아 《切韻指掌圖·辨字母次第例》의 기재는 소홀하게 “宮”과 “羽”가 전도 誤植된 것으로 “宮·脣”, “羽·喉”는 “宮·喉”, “羽·脣”으로 改正되어야 함이 당연함을 알겠으며, 아울러 《訓民正音·制字解例》중 五行五音說의 관계 부분도 잘못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관계를 作表하면 다음과 같다.

五 聲	喉 音	牙 音	舌 音	齒 音	脣 音	半 舌 音	半 齒 音
五 音	※ 宮	角	徵	商	※ 羽		
五 行	上	木	火	金	水		
五 季	季 夏	春	夏	秋	冬		
中 國 三十六字母	影匣曉喻	見羣溪疑	端定透泥 知澄徹知	精從清心邪 照牀穿審禪	幫並滂明 非奉敷微	來	日
訓民正音初 聲舉例漢字	挹洪虛欲	君糾快業	斗覃吞那	卽慈侵戎邪	譬步漂彌	閏	穢
訓民正音	ㅎ ㅎㅇ	ㄱ ㄱㅇ	ㄷ ㄷㅇ	ㅈ ㅈㅇ	ㅌ ㅌㅇ	ㄹ	ㄷ

4) 《皇極經世·緒言》卷4, p. 74.

여

백

訓民正音의 創制年代와 한글날

- 世宗大王 誕辰日도 5월 15일이 아니다 -

진태하 명지대 국문과 교수

- 1985. - (현) 한국국어교육학회 회장
- 1994. - 교육부 국어교과서 편찬심의위원
- 1995. - (현) 한국전각학회 부회장
- 1996. - (현) 문화체육부 국어심의위원
- 1998. - (현)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상임집행위원장

대표저서

아 백두산

고전문학

한국어접미사연구

鷄林類事연구

여

백

訓民正音의 創制年代와 한글날

- 世宗大王 誕辰日도 5월 15일이 아니다 -

陳 泰 夏

명지대학교국문학과 교수
한국국어교육학회 회장

(1) 序言

今年은 우리 民族의 영원한 聖王이실 뿐만 아니라, 人類歷史上으로 보아도 만세의 師表이신 世宗大王의 誕辰 60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世宗大王의 거룩한 업적을 마음속 깊이 기리고 기념해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특히 세계 文字史上 가장 科學的이고도 우수한 文字라고 국내외 학자들이 공인하고 있는 「訓民正音」의 創制에 대하여, 그 고마움과 더불어 韓民族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世宗大王에 대한 記錄이 《世宗實錄》을 비롯하여 《訓民正音》(解例本) 등에 분명히 실려 있는데도 우리 후손들이 漢文의 해석이나, 年代와 날짜를 잘못 換算하여 訓民正音의 「創制年代」, 「한글날」, 世宗大王의 「誕辰日」, 「昇遐日」 등을 全國民이 틀리게 알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단순히 앞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쓰는 것이 아니라, 韓民族史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한글」에 대한 記錄을 정확히 밝혀서 전국민으로 하여금 모두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21세기 한국의 시대에 대비하여, 온 세계에 정확하고도 통

일된 사실로 「한글」을 선양해야겠기에, 지금까지 잘못된 사실들을 고증하여 闡明하는 바이다.

(2) 訓民正音의 創制年代에 대하여

작년 10월 9일 「한글날」에 문화관광부의 기념행사에서는 물론, KBS 방송을 비롯하여 각 신문 방송에서 「한글 반포 555돌」 기념이라고 보도하고, 한글을 어느 기관보다도 깊이 연구하고 있는 「한글학회」에서도 555돌이라고 기념행사를 하였으니 금년은 556돌이라고 기념할 것이 틀림없다.

무엇 때문에 자랑스러운 「한글」의 制定年代를 「3년」이나 늦추어 국내외에 오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우선 訓民正音의 創制와 그에 관련된 記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世宗實錄》 25년(1443) 12월조에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是謂訓民正音.”(이 달[12월]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는데, ……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이른다.)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 해 곧 世宗 26년(1444) 2월에는 集賢殿의 崔恒·朴彭年·申叔舟 등이 한글로 중국의 韻書인 《韻會》를 번역하고¹⁾, 또한 같은 해 2월에 集賢殿의 副提學으로 있던 崔萬理가 한글의 창제 사용에 대하여 반대 상소문을 올리고²⁾, 世宗 27년(1445) 4

1) 《世宗實錄》에 “丙申, 命集賢殿校理崔恒, 副校理朴彭年, 副修撰申叔舟, 李善老, 李埴, 敦寧府注簿姜希顔 等, 詣議事廳, 以諺文譯韻會. 東宮與晉陽大君瑛, 安平大君瑬, 監掌其事, 皆稟容斷, 業賜稠重, 供億優厚矣.”(卷一百三, 二十六年甲子二月)의 기록으로 보아도 《韻會》의 번역 사업이 訓民正音 반포 이전에 시험적인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 《世宗實錄》에 “庚子, 集賢殿副提學崔萬理等上疏曰: 臣等伏觀諺文制作, 至爲神妙, 創物運智, 竄出千古, 然臣等區區管見, 尙有可疑者, 敢布危懇, 謹疏于後, 伏惟聖裁. …… 儻曰: 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 則字形雖倣古之篆文, 用音合字, 盡反於古, 實無所據, …… 又輕改古人已成之韻書, 附會無稽之諺文, 聚工匠數十人刻之, 劇欲廣布, 其於天下後

월에는 125장이거나 되는 장편의 《龍飛御天歌》를 한글과 한자를 사용하여 지었고³⁾, 世宗 28년(1446) 12월에 世宗은 吏曹에 명하여, 史科 및 史典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 시험에 訓民正音を 아울러 쓰도록 한⁴⁾ 사실들이 《世宗實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訓民正音を 창제하여 3년간이나 구체적으로 널리 보급하여 쓴 뒤에, 새삼 頒布하였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더구나 의도적으로 朝鮮朝 건국의 偉大性和 合理性을 나타내고자 특별히 편찬한 建國頌의 《龍飛御天歌》를, 한글이 반포되기 전에 그 시험작으로 편찬하였다는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한글의 創制와 頒布 연대를 誤認하여 온 까닭

아직도 세종 28년(1446)에 訓民正音を 반포한 것으로 誤認하고

世公議何如……”(卷一百三, 二十六年甲子二月)와 같이 1100여자나 되는 長文의 구체적인 上疏文 내용으로 볼 때, 결코 「訓民正音」의 시험 과정중에 대하여 의견을 낸 장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대한 반대 상소문임을 알 수 있다.

- 3) 《世宗實錄》에 “戊申, ……議政府右贊成權踰, 右贊參鄭麟趾, 工曹參判安止等, 進龍飛御天歌十卷, ……歌用國言, 仍繫之詩, 以解其語, ……所撰歌詩摠一百二十五章, ……命刊板以行.”(卷一百八, 二十七年乙丑四月)이라 하여, 당시에 이미 訓民正音を 사용하여 《龍飛御天歌》를 撰하였음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그러나 姜信沆 교수는 “權踰 등이 撰進한 龍歌原稿는 漢字에 依한 漢詩뿐이었고, 곧 이어 崔恒 等の 손으로 「訓民正音」에 依한 歌詩와 本註 및 夾註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推測되는 것이다.”(《訓民正音研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1. 6. p.293)라고 <龍飛御天歌의 編纂經緯에 對하여>에서 考證하였는데, 實錄에 「實錄非史官不得見」이라고 한 바와 같이 史官들이 每日 日記式으로 사실을 기록하여 엄격하게 관장된 實錄을 不信하여 이미 世宗 27년 4월의 實錄에 밝힌 「歌用國言」의 기록을 世宗 29년에 龍歌가 完成될 當時에 加하여진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 4) 《世宗實錄》에 “己未, ……傳旨吏曹, 今後吏科及史典取才時, 訓民正音並令試取, 雖不通義理, 能合字者取之.”(卷一百十四, 二十八年丙寅十二月)라고 한 바와 같이 世宗 28년 9월에 「訓民正音」이 반포되었다면, 불과 3개월에 일반인들에게 官吏 시험을 볼 만큼 訓民正音이 그렇게 빨리 보급되어 학습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통신수단으로 볼 때 믿기 어렵다.

있는 이유는, 《世宗實錄》 28년(1446) 9월조에 “是月 訓民正音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여, 이 달 곧 세종 28년(1446) 9월에 訓民正音を 완성하여 반포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다.

이렇게 誤釋하게 된 발단은 崔鉉培 선생의 《한글갈》(正音社, 1946)에 “是月 訓民正音成.”에 대하여 “「實錄」의 記法에 日字의 不明確한 事件은 그달 끝에 「是月」이라 記錄하는 것이요, 또 상고한 바에 依하면, 當年の 九月이 적은 달이었으므로, 上記「訓民正音」頒布의 記事는 陰 九月 二十九日임이 밝아졌다.”(p.55)라 하였고, 李熙昇 선생의 《國語學概說》(民衆書館, 1955)에도 “「世宗實錄 25年 癸亥 十二月條에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라 한 記事에 依하면, 「訓民正音」이 頒布된 해 卽 世宗 28年 丙寅(단기 3779; 서기 1446)보다 3年 前에 새 文字가 이미 完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漢字의 釋을 우리 글로 翻譯하여 보고, 다른 편으로는 純粹한 우리 노래를 이 새 글로 創作하여 보아, 이만하면 하는 自信을 얻은 後(28年 丙寅)에 國內에 正式으로 公布한 것이라 생각된다.”(p.32)라고 한 것을 보면, 뒤에 와서 「한글 전용」과 「國漢文 혼용」으로 대립되었던 崔鉉培 선생이나 李熙昇 선생이 모두 「是月 訓民正音成」을 잘못 해석하여 세종 25년에 제정하고, 28년에 반포한 것으로 여긴 것이다.⁵⁾

그러나 《世宗實錄》 28년(1446) 9월조의 “是月 訓民正音成”의 「訓民正音」은 문자의 명칭이 아니라, 《訓民正音》이란 책의 명칭인 것이다.

5) 崔鉉培 선생과 李熙昇 선생의 「朝鮮語學會」와는 다른 學派의 「朝鮮語學研究會」의 朴勝彬 선생도 “朝鮮語音을 記寫할 文字는 李朝 世宗大王의 偉業으로 創製된 訓民正音으로써 그 音字의 制定은 距今 四百九十年前 癸亥(西曆一四四三年)이오 그 頒布는 三年後 丙寅年이라.”(《朝鮮語學》, 1935, p.18)고 언급한 것을 보면, 당시는 국어학자들이 모두 訓民正音의 創制와 頒布를 달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이 《訓民正音》이란 책의 명칭인 것은, 1940년 安東에서 《訓民正音》이란 책이 처음 발견되어 판명된 것이다.⁶⁾

현재 國寶 제70호로 지정되어 澗松美術館에 소장되어 있는 《訓民正音》원본의 鄭麟趾 序文에도 이 책의 원고 완성 시기를 「正統 十一年 九月 上澣」으로 명기하여 놓았다. 「正統 十一年」은 곧 世宗 28年(1446)이다.

그러므로 《世宗實錄》28년 9월조의 “是月 訓民正音成”은 새로 만든 文字를 혼자라도 익힐 수 있도록 解說書 곧 참고서로서 《訓民正音》을 편찬하여 그 원고를 완성하였다는 뜻이다.⁷⁾

前人들의 誤釋에 대하여 金敏洙 교수가 이미 《국어국문학》 제14집(1955. 12)에 “세종 28년 9월 상순은 「訓民正音」이란 책 자체의 완성 시기다. 따라서 10월 9일은 「訓民正音 解例 완성 기념일」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한글 반포 기념일」은 되지 못한다. 세종 25년 12월은 한글의 창제뿐만 아니라, 반포한 시기이다.”(p.68)라고 소상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金 교수는 같은 글에서 “따라서 12월 30일은 양력으로 따진 서기 1444년 1월 28일을 근거로 하여, 1월 28일이 「한글 창제 기념일」이요, 「한글 반포 기념일」이다.”(p.68)라고 주장하였다.

이 역시 잘못이다. 《世宗實錄》25년 12월조 마지막에 날짜도 밝히지 않고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라고 한 것은 訓民正音

6) 鄭喆의 <原本 訓民正音의 保存 經緯에 대하여>에 의하면 慶北 安東郡 臥龍面 周下洞의 李漢杰氏宅의 家寶로 世傳된 책이라고 한다.(《국어국문학》 9호, 1954. 4. p.15) 《訓民正音》의 原本을 보지 못한 北韓의 럽종률은 “1940년에 경상북도 안동군의 어느 집 다락에서 우연히 걸장과 첫장을 떼버린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었다.”(《<훈민정음>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p.16)라고 하였는데, 실은 1장이 아니라 2장이 떨어진 것을 李漢杰氏의 三男 李容準(書藝家)氏가 世宗實錄本을 참고하여 원본의 安平大君 書體와 비슷하게 써 넣었으나, 世宗御製 序의 끝에 「耳」字를 「矣」로 잘못 쓴대로 전해지고 있다.

7) 《訓民正音》의 鄭麟趾 序에 “遂命詳加解釋, 以諭諸人, …… 謹作諸解及例, 以叙其梗概, 庶使觀者不師而自悟, 若其淵源精義之妙, 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라고 한 바와 같이 「不師而自悟」의 解說書임을 분명히 밝혀 놓았다.

이 12월 마지막날 곧 30일에 창제 완성되었음이 아니라, 훈민정음의 창제 작업이 당시 은밀히 진행되었으므로 史官들이 분명한 창제 완성 일자를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 12월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여 놓은 것인데, 이것을 기준하여 陽曆으로 환산해서 한글 창제 반포를 「1444년 1월 28일」로 하자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實錄을 살펴보면 干支로 날짜를 밝히지 않고 事件을 기록한 것이 별로 없는데, 《世宗實錄》중에 묘하게도 「是月」이라 하여 날짜를 밝히지 못하고 그 달 끝에 記錄하여 놓은 사실로 (1)“是月，上親制諺文二十八字……是謂訓民正音.”(二十五年癸亥，十二月)과, (2)“是月，訓民正音成……”(二十八年丙寅，九月)과, (3)“是月，東國正韻成……”(二十九年丁卯，九月)과 같이 3件이 있다. 모두 訓民正音과 관계되는 史實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史官들도 잘 모르게 은밀히 진행된 사실이었음을 방증할 수 있고,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是月」이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곧 28년조의 「是月」은 《訓民正音》이라는 책이 발견되어 「九月 上澣」임을 알게 되었고, 29년조의 「是月」은 《東國正韻》의 序에 “正統十二年丁卯九月下澣，通德郎守集賢殿應教藝文應教知製教經筵檢討官臣申叔舟 拜手稽首謹序”로서 분명히 밝혀져 있으니 「九月 下澣」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實錄의 그 달 마지막 날짜 기사 다음에 쓰인 「是月」이라는 기록이 실제로는 「上澣」도 되고, 「下澣」도 되니, 25년조의 「是月」도 결코 마지막 날짜를 뜻함이 아닌 것은 부언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더구나 25년조의 「是月」은 《訓民正音》(解例本)의 “癸亥冬，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略揭例義以示之，名曰訓民正音.”과 《世宗實錄》의 “癸亥冬，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略揭例義以示之，名

曰訓民正音.”으로 보아 史官들이 당시로서는 어느 날이 아니라, 어느 달에 「訓民正音」이 創制되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는 없고, 그 해에 創制된 것은 사실이니 해를 넘기어 記錄할 수도 없기 때문에, 12월 마지막 날인 「庚戌」(陰 30日)日까지의 사실을 기록한 뒤에 「是月」이란 말로 썼으니, 여기서의 「是月」은 「是年」 또는 「是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訓民正音」의 創制 날짜는 《訓民正音》과 《世宗實錄》중의 「癸亥冬」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이다.

또한 金 교수는 무엇에 근거하여 1월 28일을 주장하였는지는 몰라도⁸⁾, 陰 12월 3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월 19일이 된다. 北韓에서도 한글의 창제를 1444년 1월로 밝히고 있으나(최정후: 조선어학개론, 평양, 1983)⁹⁾, 金敏洙 교수와 같은 견해에서 잘못 환산한 것이다.

《訓民正音》(解例本)의 鄭麟趾 序文에 “癸亥 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라 기록되어 있는데, 「癸亥年」은 곧 世宗 25年(1443)이고, 「冬」은 12월만이 아니라, 實錄의 기록을 보면 「冬十月」, 「春正月」 등과 같이 명기하였으니, 「冬」은 곧 「10月, 11月, 12月」

8) 金敏洙 교수는 朝鮮總督府觀測所에서 발행한 《陰陽曆對照表》(1937. 10. 20)에 의하여 “陰 1443年 12月 30日是 陽 1444年 1月 28日”로 換算하였다고 韓國語文研究會에서 직접 書面으로 밝혔는데, 문제는 참고자료로 한 《陰陽曆對照表》를 고찰하여 보니, 「율리우스曆」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레고리오曆」으로 환산하였으며, 韓國과 日本의 날짜도 일치되지 않는 자료였다.

9) 최정후 외에도 北韓의 학자중에 訓民正音의 창제를 陽曆으로 환산하여 「1444년 1월」로 주장한 사람으로 럽종률은 “..... 그 창제 연대가 세종 25년 음력 12월로 밝혀있다. 세종 25년이면 1443년인데 그해 음력 12월은 양력으로 환산하여 1444년 1월이 된다.”(《훈민정음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pp.8~9)와 류렬의 “..... 우리 인민의 창조적재능을 모아 1444년 1월 드디어 새로운 민족글자를 만드는 역사적인 사업을 완수하였다.”(《조선말역사》, 사회과학출판사, 1992. p.485)고 언급한 것 외에도 김일성이 “이미 삼국시기부터 리두문자를 사용하여오던 우리 인민은 1444년에 가장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1권, 232~233페이지)”(박정문, 《조선어사연구논문집》, 교육도서출판사, 1984, p.346)라고 밝힌 바로 볼 때, 北韓에서는 訓民正音의 創制를 「1444년 1월」로 확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3개월내를 가리킨 것이다.

또한 《세종실록》 28년 9월조에도 “癸亥 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 以示之, 名曰訓民正音.”이라 하여, 이미 癸亥年 곧 세종 25년 冬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간단히 例義까지 들어 보였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그 결과를 알린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재삼 강조하지만 세종 28년 9월에 다시 반포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

實錄 또는 訓民正音의 관계 문헌 어디에도 「頒布」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지금처럼 신문·방송에 보도할 수 있는 체제도 아닌데, 창제하여 3년이나 실험을 한 뒤, 백성들에게 반포하였다고 오인하여 온 것은,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前人들의 誤釋에 기인한 추측일 뿐이다.

《訓民正音》이란 책의 원고가 完成된 날이 세종 28년 9월 上澣이니, 그 책이 板刻되어 세상에 流布된 것은 상당 기간 뒤일 것이다.¹⁰⁾

(4) 「한글날」도 10월 9일이 아니다.

과거에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한 경위를 《한글학회 50년사》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 연구회」에서 1926년 11월 4일(음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하였다. 그 이유는 《세종실록》 28년 9월조에 “是月 訓民正音成”에 근거하여 9월 끝날을 택하여 29일로 정하였다는 것이다.

10) 《龍飛御天歌》가 世宗 27년 4월에 편찬되어, 世宗 29년 10월에 刊行되었고, 《東國正韻》이 世宗 29년 9월에 편찬되어 世宗 30년 11월에 반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訓民正音》의 刊行은 분량이 적기는 하지만, 적어도 數個月 이상 걸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世宗 28년 9월 上澣은 절대로 「訓民正音」의 頒布日이 될 수 없다.

② 1928년에 「가갸날」을 「한글날」로 명칭을 고치고, 1932년부터는 양력으로 바꾸어 10월 29일로 「한글날」을 정하였다.

③ 1934년에는 2년 전에 양력으로 환산한 기준이 「율리우스曆」에 의거함이 맞지 않다 하여, 「그레고리오曆」에 의하여 10월 29일을 10월 28일로 고쳤다.¹¹⁾

④ 1940년 7월에 安東에서 《訓民正音》 원본이 발견되었는데, 그 책 끝에 “正統十一年 九月 上澣”이란 기록에 의하여, 光復後 곧 1945년에 「九月 上澣」의 「上澣」을 끝날인 10일로 잡고,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로 「한글날」을 확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崔鉉培 선생은 “正統 十一年은 世宗 二十八年 丙寅에 該當하고, 上澣은 곧 上旬인 즉, 九月 十日로써 그 頒布日이라 할 만하다.¹²⁾ 그래서, 이를 陽曆으로 換算하면, 十月 九日이 되니, 이 날로써 한글날을 삼을 것이다. 朝鮮語學會에서는 十月 九日로써 한글날로 改定하였으니, 아마도 이것이 最後的 決定이 될 것이다.”(《한글갈》, p.56)라고 한 바와 같이 잘못 밝혀 놓았다.

訓民正音의 반포 연도에 대해서는 그 근거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이미 앞에서 고증하였으니 부언할 필요가 없고, 날짜를 陽曆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잘못되었음을 밝힌다.

1446년 음력 9월 29일을 《兩千年中西曆對照表》(台灣, 國民出

11) 朝鮮語學研究會에서는 “朝鮮語學會 發表 「한글雜誌」 第一卷 第五號 二〇六頁에 한글날 記事中 「我한글創造는 距今 四百八十六年前 李朝 世宗 丙寅 陰九月二十九日이든 바 ……」이라 하여쓰나 이는 單純히 錯誤된 解釋이라 아니할 수 없다.”(《正音》第四號, 訓民正音頒布日에 對한 考證, 編輯者, 1934. 9, p.35)라고 《世宗實錄》中 「是月」의 해석에 대하여 반박하고, “…… 世宗 二十八年 丙寅 九月 一日에 두고 陽曆現行曆法에 依하여 溯及計算한 結果 西曆一四四六年 九月 十日에 該當함을 얻었다. 이날이 訓民正音 頒布記念日이라고 말하고자한다.”(同書 p.37)라고 1935년부터 별도로 紀念日 행사를 가졌던 일이 있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잘못된 것은 마찬가지였다.

12) 「上澣」은 1일부터 10일까지를 일컫는데, 그 중간을 택하지 않고 마지막날인 10일을 택한 것도 합리성이 없다.

版社, 1958)에 의하여 양력으로 환산하여 보니, 10월 29일도 10월 28일도 아니고, 「10월 19일」이다.

그러므로 과거 1932년부터 10월 29일로, 1934년부터는 10월 28일로 고쳐, 1945년 전까지 20여년간을 전연 잘못 환산된 날로 「한글날」을 기념하여 온 것이다.

또한 1945년부터는 「10월 9일」로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비록 《訓民正音》이라는 책의 원고가 完成된 날이라 하여도, 世宗 28년(丙寅, 1446) 9월 上澣, 곧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양력으로 「10월 9일」이 아니라, 분명히 「9월 30일」이 된다.

이 問題에 대하여 天文曆算學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朴星來 교수(韓國科學史學會長)도 韓國語文研究會에서 주최한 「世宗大王誕辰 600周年 紀念 學術大會」에서 “…… 따라서 世宗 28년 9월은 「訓民正音」이란 책의 완성 시기를 가리킨 것이지, 한글이 완성된 때가 아니다. 이 날짜를 <한글날>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世宗 28년 9월 10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날을 陽曆 10월 9일로 換算하여 그 날을 <한글날>로 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그 날이 오늘 우리가 쓰는 陽曆으로는 10월 9일이 되지만, 당시 실제로 사용되던 西洋의 陽曆으로는 엉뚱한 날짜가 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아직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陽曆-「그레고리오曆」-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陽曆-율리우스曆-으로 換算하면 그 날은 1446년 9월 30일(金曜日)이 된다.”(世宗의 科學과 天文, 1997. 5. 13. p.5)라고 하여 筆者와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것을 명확히 고증하기 위하여 《兩千年中西曆對照表》에 의하여, 1446년 음력 9월 10일의 干支를 찾아보니 「乙亥」일인데, 《世宗實錄》에도 이 해 陰曆 9월 10일이 「乙亥」일로 완전히 일

치되었다.

崔鉉培 선생은 무엇에 근거하여 어떻게 환산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이상과 같이 틀리게 환산한 까닭은 서양에서 1582년 이전까지는 「율리우스曆」을 사용하다가 1583년부터는 「그리고리오曆」을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을 모르고, 지금의 「그리고리오曆」으로 환산한 것 같다.

그러므로 1945년부터 금년까지 50여년을 「10월 9일」로 한글 반포일이라고 매년 기념하여 왔는데, 실로 이 날은 한글 반포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訓民正音》이란 책의 원고가 완성된 날도 아니니,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여 온 것인지조차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北韓에서는 「訓民正音」 창제 기념일에 대하여 “세종 25년 12월(음력)은 1444년 1월이 기본으로 되므로 그 달의 중간인 1월 15일을 잡아서 우리 글을 만든 기념일로 삼는다.”(류렬, 《조선말력사》, 사회과학출판사, 1994. 7. 25. p.485)라고 하였으니, 그 부정확성은 南韓과 다를 바가 없다.

이처럼 南北韓이 모두 「訓民正音」 창제일을 제대로 고증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날을 기념하고 있음은 오늘날 「한글」을 세계에 자랑스러이 선양 보급하고 있는 우리 한민족으로서 「한글」을 배우고 연구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5) 정확한 訓民正音 창제의 연대와 「한글날」은?

앞에서 고증한 바를 간추려서 결론을 내리면, 지금까지 세종 25년(1443)에 한글을 창제하고, 세종 28년(1446)에 반포하였다고 오인하여 온 것을 즉시 시정하여, 역사 기록 어디에도 없는 「頒布」라는 말을 쓰지 말고, 「創制」라는 말로 통일하여, 「訓民正音」

곧 「한글」의 창제는 世宗 25년(癸亥), 檀紀로는 3776년, 公元(西紀)으로는 1443년으로 확정하여야 한다.¹³⁾

이 기회에 北韓과도 협의하여 현재 북한에서 한글의 창제 연대를 1444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1443년으로 수정하도록 하여, 조속히 南北韓이 한글 창제 연대를 통일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정확한 한글 창제 연대를 알도록 해야 한다.

「한글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념하여 온 반포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南韓의 「10월 9일」과 北韓의 「1월 15일」은 더 지속해서 기념할 의미가 없는 날이므로 우선 폐기해야 한다.

그 다음 「한글날」을 정함에 있어서는 訓民正音의 창제에 대한 기록으로서 《世宗實錄》25년 12월조의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와 《訓民正音》원본의 鄭麟趾 序文에 “癸亥 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라고 기록된 것에 의거하여 날짜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문 연구 학자들과 유관인들의 객관적이고도 합리성 있는 의견을 들어 다시는 異論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案이 나올 수 있으나, 참고로 「癸亥 冬」의 중간을 취하여 陰 11월 15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2월 6일」이 되니 이 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일개 학회의 오류로 인하여 한글의 창제 연대와 「한글날」을 크게 잘못 기념하여 온 것을 소상히 밝히고, 조속히 올바르게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6) 世宗大王 誕辰日도 5월 15일이 아니다.

13) 北韓은 비록 연대 고증은 잘못하였지만, 「頒布」라는 말을 일축하고 「創制」라는 말로 통일한 것은 우리보다 앞 선 정리라고 볼 수 있다.

世宗大王의 誕辰日에 대하여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제공한 <세종대왕 해적이>(한글학회 : 《한글새소식》 제297호, 1997)에 “1397년(태조 6년, 1세) 4월 10일(양력 5월 15일) : 한성부¹⁴⁾ 북부 준수방에서 정안군(태종) 이 방원과 여흥 민씨(원경 왕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다.”(p.4)라 하였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박종국 회장도 <세종대왕의 생애와 인간성>에서 “세종대왕은……태조 6년(1397) 음력 4월 10일(양력 5월 15일) 한성부(漢城府) 준수방(俊秀坊) 잠저(潛邸)에서 조선조 제3대 임금인 태종 공정대왕(太宗恭定大王)의 셋째 아드님으로 태어났다.”(외솔회 : 《나라사랑》 제94집, 1997)고 분명히 「1397년 음력 4월 10일(양력 5월 15일)」로 밝혀 놓았다.

필자가 實錄을 조사한 바로는太祖 6年條의 實錄에는世宗의 탄신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지 않고, 《世宗實錄》(卷一)의 첫장에 “世宗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諱禔, 字元正, 太宗恭定大王弟(第)¹⁵⁾三子也. 母元敬王后閔氏, 以太祖六年丁丑四月壬辰, 生於漢陽俊秀坊潛邸.”라고 기록되어 있다.

太祖 6年(丁丑)은 1397년이니, 금년이 誕辰 600주년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實錄에는 4월 「壬辰」으로 되어 있으니, 먼저 「壬辰」日이 陰曆으로 며칠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太祖 6年(丁丑)條 4월의 實錄을 찾아보니, “夏四月癸未朔”으로 되어 있어, 따져 본 결과 壬辰日은 10일이 틀림없다.

陰曆 4월 10일을 《兩千年中西曆對照表》에 의하여 陽曆으로 환산하여 보니, 「5월 15일」이 아니라, 「5월 7일」이다. 陽曆으로 5월 15일이 되려면 陰曆으로 4월 18일이어야 하는데, 이 날은 干支로 「壬辰」日이 아니라, 「庚子」日이 된다.

그러므로 누가 처음으로世宗大王의 誕辰日인 「4월 10일」을 陽

14) 《世宗實錄》에는 「漢城府」로 되어 있지 않고 「漢陽」으로 기록되어 있다.

15) 實錄에는 「第」가 「弟」로 誤記되어 있다.

曆으로 환산하여 「5월 15일」을 찾아냈는지는 몰라도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5월 7일」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세종 대왕 해적이>에는 世宗大王의 昇遐日이 “1450년 (세종 32년, 54세) 2월 17일(양력 4월 8일) : 세종 대왕이 영웅대군 집 동별궁에서 승하하다.”(p.6)로 되어 있는데, 《世宗實錄》에는 “壬辰, 上薨于永膺大君第東別宮”과 “景泰元年二月十七日壬辰以疾薨于正寢. 享年五十四. 在位三十三年.”(卷 一百二十七, 三十二年 庚午二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승하한 곳이 다르다. 「2월 17일」도 陽曆으로 「4월 8일」이 아니라, 「3월 30일」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끝으로 부언할 것은 「訓民正音」과 「世宗大王」에 대한 제반 사실의 날짜 환산에 대하여 오히려 현행 「그레고리오曆」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옳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는 문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오류는 2가지로 검토할 수 있다. 첫째는 이미 틀린대로 오래 써 왔고, 올바르게 고치자면 번거롭고, 당국의 체면 관계도 있으니 현행대로 밀고가자는 억지 주장이거나, 「율리우스曆」과 「그레고리오曆」의 개정 과정을 잘 모르고 얼핏 생각하여 현행 「그레고리오曆」으로 소급하여 환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 단순한 생각에서의 주장일 것이다.

「그레고리오曆」에 대하여 설명한 동아출판사에서 발행한 《동아세계대백과사전》에 “……1582년에 새 역법의 공포를 선언하였다. 이것이 현행의 그레고리오曆이다. 이 해에 10일을 생략하고, 윤년은 원칙적으로 4년에 한 번,……”(p.330)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해에 10일을 생략」했다는 사실이 「1446년 陰 9월 10일」이나 世宗 誕辰日인 「1397년 陰 4월 10일」 등을 그 당시 쓰지도 않은 현행 「그레고리오曆」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兩千年中西曆對照表》에서도 1582년 10월은 「1, 2, 3, 4 ~

15, 16 …… 31」로서 「5일」부터 「14일」까지 「10일」을 생략하여 놓았다.

그러므로 「1300년대」와 「1400년대」의 역사적인 사실의 날짜를 현행 「그레고리오曆」으로 환산하였을 때 원칙적으로 「10일」의 차이가 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당시에 陰曆 날짜에 해당하는 陽曆이 없었다면 환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으나, 그 당시에 분명히 陰曆 며칠은 陽曆 며칠로 확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實錄에는 干支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10일」의 차이를 무시하고 날짜만 소급하여 환산하면 干支가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結論적으로 말해서 유관 당국은 이렇게 분명히 고증된 사실들을 전문가들에게 재확인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까지의 오류를 합리화하려는 아집을 내세워서 안 될 것이다.

이상의 誤謬들은 先人들이 미처 詳考하지 않은데서 초래된 잘못들이니, 지금에 와서 누구를 책할 일도 아니며, 또한 밝혀진 사실대로 고친다고 하여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유관 당국에서는 이상의 오류들을 재확인하여, 조속히 匡正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訓民正音 創制 유관

고증 자료 연대	근거 자료 인용	자료 설명
세종 25년(1443) 12월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세종실록 권 102)	세종 25년에 분명히 한글이 창제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
세종 26년(1444) 2월 丙申	詣議事廳, 以諺文譯韻會 (세종실록 권 103)	최항 · 박팽년 · 신숙주 등이 한글로 中國의 운서인 「韻會」를 번역.
세종 26년(1444) 2월 庚子	輕改古人已成之韻書, 附會 無稽之諺文. (세종실록 권 103)	최만리 등이 반대 상소문에서 중국의 운서를 한글로 고치는 것을 지탄.
세종 27년(1445) 4월 戊申	進龍飛御天歌十卷. (세종실록 권 108)	권재 · 정인지 · 안지 등이 건국을 칭송하는 용비어천가를 국한문으로 지어 올림.
세종 28년(1446) 9월	是月, 訓民正音成. …癸亥 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 八字, 略 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세종실록 권 113)	1940년 安東에서 발견된 「訓民正音」 원본에 실린 정인지의 序文과 같음. 이 序文에 「正統十一年 九月 上澣」은 곧 세종 28년 9월로 세종실록과 일치함. 그러므로 세종실록의 「訓民正音」은 책의 명칭임이 분명함.
세종 28년(1446) 12월 己未	傳旨吏曹, 今後吏科及吏典取 才時, 訓民正音, 並令試取. (세종실록 권 114)	吏曹에 명하여 吏科 및 吏典에 필요한 인재를 뽑을 때, 훈민정음을 아울러 시험보도록 함.
세종 29년(1447) 2월	殿下覽而嘉之, 賜名曰龍飛御 天歌, ……後爲音訓, 以便觀覽. (龍飛御天歌 崔恒 跋)	세종 29년 2월에 용비어천가가 완성되어 10월에 발간함.

「한글날」의 변천 과정

한글날의 변천과정	변경 내용	참고	정확한 양력 날짜
1926년 11월4일 (음 9월 29일)	조선어 연구회(한글 학회 전신)에서 「가가 날」로 정함. 9월의 끝 날인 29일을 취함.	세종실록 28년 9월조 의 「是月 訓民正音成」 에 근거하면서부터 오 류를 범함.	마지막 29일을 취 한 것은 잘못이나, 양 력 11월 4일은 틀림 없음.
1928년	「가가날」을 「한글 날」로 고침		
1932년	음력 9월 29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 월 29일로 고침.	당시 수학 전문가 이명칠·권상로에게 의 뢰.	1446년 음력 9월 29일은 양력 10월 19 일임.
1934년	그레고리오曆에 의 거하여 10월 28일로 변경.	그 전에는 율리우스 曆에 의함. 역시 틀림.	
1945년	9월 상순의 끝날인 10일을 취하여, 양력 으로 10월 9일로 변 경.	1940년 7월 안동에 서 발견된 「훈민정음」 원본에 의거.	1446년 음력 9월 10일은 양력 9월 30일 임. (1582년 이전까지 는 「율리우스曆」, 1583년부터는 「그레고 리오曆」에 의하여換 算하여야 하는데, 「10 월 9일」은 後者에 의 한換算임.)
1946년	「한글날」을 공휴일 로 정함.	1990년 공휴일에서 제거.	

여

백

한글의 오늘과 내일

발행일 : 2002년 5월

발행처 : 여주문화원 (tel. 031-883-3450)

발행인 : 한만규

디자인 / 제작 : 아인기획(tel. 02-515-7495)

이 책은 여주군의 지원금으로 발간 되었습니다.

